



제24차 미주 평의원 회의 성대하게 개최 (7-13면)

제13대 미주동창회 손재옥 회장 취임사



손재옥 (가정대 77)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기다림이었습니다. 이제 제 임기가 시작됩니다. 준비를 하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기분입니다. 전

회장님들의 격려와 응원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없는 이메일의 정보와 지도편달을 해주셨던 12대 회장단의 오인환 회장님, 정평희 사무총장님, 장경태 편집위원장님, 한정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주동창회를 기억해 주시고 축사와 격려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화 총동창회장님과 성낙인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 총동창회의 사업은 지역동창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동창회보를 통해서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있는 동문들에게 동문들의 소식을 가지고 다가가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송순영 회장님께서(10대) 시작하신 Brain Network는 회장단의 사업

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총동창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총동창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동창회의 주인은 회

를 말합니다. 20년간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실속을 기하는 동창회가 되기를 13대 임원들과 함께 꿈꾸어 봅니다. 저는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문들의 관심증대와 회비참여를 위하여 전진하겠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실속이 있고 연주자가 훌륭해도 관객이 없는 연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인들의 선호하는 바가 다르고 세대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넘어야 할 장벽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아름다운 조화의 한 장내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13대 회장과 미주 총동창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조화의 동창회를...

으로 회기에 한 번씩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국학의 중요성도 모두가 인지한 상황입니다.

모든일이 그렇듯이 의도와 현실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자가 디자인을 잘 했다해서 그 빌딩 디자인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만족해야하며, 빌딩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매일 편리하

비를 내는 동문들이십니다. 사용자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서울대 동문입니다. 회장단은 설계자요 공사자입니다.

회장의 꿈과 디자인도 시간과 재정이 뒷받쳐주어야 합니다. 제 꿈은 미주 총동창회가 반석위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반석이란, 자타가 보아도 튼튼한 살림살이

하와이대 백태웅 교수 UN 인권이사회 실무위원 선정

백태웅(법대 81)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7월 3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비자발적 실종자들을 위한 인권실무그룹' 위원으로 선임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29차 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강제-비자발적 실종자 문제를 토의하고, 강제실종 피해자 및 그 가족과 해당국 정부 간 의사소통

채널 역할을 하는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으로 백 교수를 선임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5개 지역그룹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55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조치(Procedure) 중 하나로



백태웅 교수 (법대 81)

현재의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1980년 설치했고,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에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인권이사회 특별조치는 미얀마, 북한 등 국별 인권(14개 직위)이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41개 직위)에 대해 상황을 평가

하고 필요한 권고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출신국 정부나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백 교수의 이번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임명을 계기로 국제 인권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더 제고됐으며, 한국전쟁 이후 강제 납북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기사 및 동문 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을 갖습니다.

1	신임회장 취임사 / 백태웅 교수 UN 인권위원회 선임	21 - 23	동문칼럼 / 독후감
2	성낙인 총장 축사 / 서정화 총동창회장 격려사	24	My Story & Your History
3	오인환 회장 이임사 / 윤상래 차기회장 당선의 변		부고란을 신설하며
4	주필칼럼 / 세계속의 서울대		독자의 광장
5 - 6, 14	모교소식	25 - 26	축하광고
7	화보 - 24차 평의원회의 이모저모	27	동창회비
8 - 13	24차 평의원회의 상보	28 - 29	동문 업소록
15 - 18	지부소식 (DC·HOU·PA·NE·NY·CHI·LA)	29	편집후기
18 - 19	모교소식 / 국내뉴스	30	동창회 조직
20	건강칼럼 / 퀴즈 - Social Security?	31 - 32	광고

〈제24차 미주총동창회 평의원회 축사〉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존경하는 미주총동창회 오인환 회장님과 손재욱 차기 회장님, 그리고 정직과 성실, 헌신으로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고 계신 1만여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제24차 평의원 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모국의 안녕과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염원하고 계시는 동문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사상 초유의 국립대학법인 체제로 전환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학교는 법인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립대학 법인체제의 발전 기초를 튼튼히 하며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대형 발전모델'을 제시하고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의 대학이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봉사하는 대학입니다. 이웃과 공동체에 봉사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모든 구성원들은 봉사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우리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참된 인재상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저는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익, 공공성, 공동선(共同善)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서울대학교가 나아가갈 방향의 하나로 '선(善)한 인재상' 정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선의지(善意志, guter Wille)가 충만한 인재상을 양성해야 하고, 지식활동 또한 선의지로 충만해야 합니다. 선의지가 우리의 의지작용 전체를 관통하고 생활의 근반을 구성하도록 확립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본연의 모습이자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이제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 아시아의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주 동문님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끊임없는 인내와 헌신, 서울대학교 졸업생으로서의 긍지와 영예 덕분일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서울대 동문님들의 사회적인 공헌과 역할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미래를 밝힐 불씨가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총장으로서 미주 동문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원이 되고, 더 나아가 세계 초일류 대학이 될 수 있는 교육 환경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주 총동창회 「제24차 정기 평의원 회의」가 동문 여러분들의 가치와 자부심을 새롭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모교 서울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격려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존경하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오인환 회장님과 김은종 명예회장님, 그리고 손재욱 차기 회장님을 비롯한 미주 각 지부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빛내 주신 평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문 여러분!

평소 여러분이 품고 계신 모교에 대한 애정, 조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바가 있어 오늘의 만남에 즈음하여, 미주사회에서 존경받으며 활약해 오신 여러 동문들에게 세상 경의와 우정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저는 매일 발행되는 미주동창회보를 통해 동문들의 활약과 본국을 향한 애정어린 조연, 그리고 단합된 모습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는 다양한 친선모임과 장학사업, 기부활동 등을 활발히 하셔서, 해외 서울대 동창회 중에서도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근래 미주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학문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서울대 미주동창회 한국학연구소' 설립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오인환 회장님의 큰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교 출신의 세계적 석학을 한자리에 초빙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치·사회·경제 현황을 심층 진단하는 'Brain Network Workshop'은 미주 동문들의 뛰어난 역량과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서, 서울대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오늘 회의에서는 미주 동문들의 지속적인 단합과 새로운 비전 실현에 앞장서 주실 제13대 회장단과 집행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주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오신 오인환 회장님, 권철수 기금모금위원장님, 장경태 회보 편집위원장님, 정평희 사무총장님, 한정민 총무국장님, 백옥자 조직국장님, 류홍렬 재무국장님, 함은선 광고국장님, 김정식 사업국장님, 이우진 섭외국장님 등 미주동창회 분부 임원 여러분과 워싱턴 DC지부 동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손재욱 회장님과 임원진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미주동창회를 잘 이끌어 달라는 뜻에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미주동창회는 25개 지역동창회와 1만여 명의 회원을 아우르는 거대 한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미주동창회는 회원 화합을 넘어 미주 한인사회의 엘리트조직으로서 한인 모두의 위상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주동창회에서 앞으로 100년을 위한 차세대 지도자 발굴 및 육성에 앞장서 미주 한인들이 미국 주류 사회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본 동창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오면서 모교와 조국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동창회 설립 반 세기를 맞아, 앞으로 모든 동문이 합심하여 이뤄 나가야할 과제 및 가치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모교의 역사와 가치를 확립하여 후세에 계승해야 합니다. 총동창회는 120년사 편찬사업 및 역사연구기록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1946년 서울대학교 설치령 이전의 역사를 복원하고, 서울대인의 가치로서 자선·겸손·봉사를 제시하여 모교와 한국사회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주 동창회 또한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확립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해 오셨습니다. 특히 근래 준비하고 계신 서울대 미주 동창회 한국학연구소 설립을 통해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 사회 및 학계에서 활약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학사업을 통해 후속 세대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모교의 후배들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



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결국 사회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소위 '스튜던트 푸어'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창회는 30여명의 장학금을 출연하는 한편, 멘토링 관계로 선후배를 연결하여 전인격적인 지원까지 제공하도록 하는 '결연장학금'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교의 연구 및 교육역량의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만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존의 기술강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이 압도적인 시장과 자본을 앞세워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의 영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 계속 강소국가로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세계에 뒤지지 않을 첨단 과학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가는 한편, 세계 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인력과 경영자원을 양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학부인 서울대야말로 그 사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각지의 서울대 동문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동창회 조직을 확충해야 합니다. 35만을 아우르는 서울대학교 동창회지만 그 중에는 연락이 끊어진 동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에 취임한 이후로 10만 명을 찾아냈고 올해도 15만 명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문들을 규합해 국가별 총동창회를 계속 확장하여, 모교와 조국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호단체로 육성하는 한편 우리 동문이 세계 어디에 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총동창회 중 가장 훌륭한 성취를 이루신 동창회분들이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 간추린 내용을 보고 드리며 이 모든 부문을 추진하는 동안 많은 지도와 지원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총동창회원의 일생에 항시 서울대학교의 명예와 진리가 그 토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동문은 세상 어디에서도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최근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세계사적 지각변동의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기에 특별히 우리 서울대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내외의 모든 서울대인들은 힘을 합쳐 어떻게 국가와 사회의 안전과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합심하면 반드시 크게 이룰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총동창회장으로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대신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아울러 격려구 3천 달러를 송금하였으나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며 격려사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

제12대 미주동창회 오인환 전회장 이임사

길기도 했고 짧기도 했던 임기 2년을 마치며...



오인환 (문리대 63)

지난 2년이 어떻게 지나 갔는지도 모르게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이임사를 쓰려고 보니 우선 생각나는 것이 지난 2년간 서울대 미주총동창회 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히 영광스런 기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창회보와 평의원회의에서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를 통해 회장이 된 첫 케이스였으며 경험해 보니 장점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공약발표를 함으로 2년간의 목표가 확실했던 점이며 본부 임원님들, 지역 동창회장님들과 전회원님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면서 협조를 얻어서 8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대도약을 위한 기쁨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미주동창회 21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대도약에 도전하기 위하여 집단지성을 (Group Intelligence) 을 미주총동창회의 <시대정신>으로 삼아 동문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협동정신을 고양하고

SNUAA-USA의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2년간 시간나는 대로 여러 지역동창회를 순방했으며 서울-총동창회가 주최하는 Homecoming Day

제14대 미주동창회 윤상래 차기회장 당선 의 변



윤상래 (수의대 62)

전문을 하였던 덕택에 제품이 제대로 생산이 되었는가 하면, 내가 개발, 제조한 제품은 정부 검사에서 모두 100% 합격들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 일을 2년 반 하고나니 싫증이 나 버렸다. 일테면 'Burnt-out' 이 되어 버린 것이다. 1972 년 1 월에 생소할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다행히도 녹십자에서 밤낮으로 일한 것이 인정 받았던지 그해 봄, 기술재유자 미국을 방문한 한국 녹십

Determination Decides Destiny

자 사장의 추천으로 6월부터 Kansas에 있는 Cutter Laboratories (현재: Bayer Corporation) 의 사외인 동물약품회사에 수의 연구원(Research Veterinarian)으로 취직이 되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러다 1975년 아랍올일파동으로 동료들과 직속 상관까지 해고 당하는 걸 보고 고된 끝에 회사를 그만 두고, 수의사 시험을 거쳐 1977년에 지금의 동물병원을 설립하고, 자업을 해 오고 있다.

개업을 하고 나서도 낯선 땅에서 언어도 그리 유창하지 못한 까닭에 무한한 애로를 겪었다. 다행히 평판이 좋아서인지 5,6 년 후에 임대했던 자그마한 건물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병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나, 용자를 받아 6,000 sf (170

의학협회, 관련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는 사업으로 한인사회와 미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동시에 SNU와 동창회를 미국사회에 알리는 기회도 된 다.

위의 8대 사업 외에도 미주동창회 최초로 한 사업들은 회보에 보고한 바와 같이 (가) IRS Audit 에 대비 하여 본부는 물론 25개 Chapter 에 대하여 Internal Audit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73%가 호응, (나) 우수문학작품 공모를 하여 시상, (다) 미주동창회 본부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다음 회장단에 전수하여 단기간에 업무를 파악하여 운영 학습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 The Korea Society 와 JGBLI, Inc.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습니다. (마) 미주동창회보를 Library of Congress, 유명 미국대학 도서관들, The Korea Society 와 JGBLI, Inc. 에도 보냈습니다. (6) DC 지역 한국 신문 일간지들과 한국대학 동창회들에도 보냈습니다.

미진했던 부분은 회원 Database, 새회원 영입, 회비 납부 분야에서 충분히 확충하지 못한 점으로 씁지는 않은 태스크였는데 다음 회장단에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은 서울음대 재학생들의 미주 순회 공연을 계획했다가 Sponsors를 구하지 못하여 실현시키지 못했으며 더 많은 미국대학 동창회와 교류를 시도했으나 문화적인 차이와 그에 따른 공통 관심사의 부족으로 확충하지 못하였습니다. 차기 회장단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매개체 겸 촉매제 역할을 하는 동창회보의 격을 높였고, On-line시대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Homepage를 개발하고 활용도를 높

평정도)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멘터이었던 교수님의 '서울대를 나왔으니...' 하시던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까닭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백배하여 노력한 결과 뜻한 바를 이루게 된 듯하다.

우리 미주 동창회는 발족된지 24년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왔다. 그러나 현실 상태만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포텐셜이 많은 단체이다. 아직도 해외로 여겨지는 이 광활한 미주 땅이 우리에게 영원히 생소할 수 밖에 없으나, 우리가

'21 세기의 세계 주인' 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독특한 장점을 심분 이용하여 미주 동창회로서의 한 일들이 많다고 본다.

우선 미주 동창회는 동창회 활동을 위한 재정 확립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현재와 또 미래 우리의 후배들을 위하여 우리 동창회가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며, 현재 세대 우리의 정신적 의무이며 또한 책임이다.

동창회 운영체제 또한 미주 전역을 포함한 임원진으로 구성하여 미주 전체가 함께 호흡을 할 수있는 체제로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 체제 개편의 출발은 평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으로, 일년에 한번 만나서 동창회 운영 보고를 듣고, 회계 결산 보고를 승인(?)하고, 만찬 참석,

했습니다. 년간 Homepage 자체운영비를 위하여 Banner 광고를 도입하였습니다. WWW.SNUAA.ORG 를 방문하시고 카페 SITE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간 여러 동문님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가운데 느낀 것으로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한국인이면 자타가 공인하는 수재들이든 너무 이기적인 수재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좀더 신경써서 한인사회에 봉사하고 미국 주류사회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하나는 머리가 좋아서 전문분야 혹은 각론에는 강하나 사회적 혹은 총론적인 안목에서는 취약한 측면을 노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졸업후에 단체나 사회생활에서 성공 하는 경우를 보면 Emotional IQ (대인관계능)가 80%를 차지하고 개인의 IQ 는 20% 정도 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Fortune 500 CEO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며 미국 산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통계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서울대 출신들한테 해당되는 말 같기도 하여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년간 미주동창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신 본부 임원님들, 지역 동창회장님들, 평의원님들, 그리고 전미주 동문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 2년간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 동문님들께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미주동창회에서 서울-총동창회 사정파 회장님과 서울대 성낙인 총장님께 추천하여 자랑스런 동문들을 위한 학술, 봉사, 참여분야 표창패를 각 세 부문씩 수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 2년간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 동문님들께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미주동창회에서 서울-총동창회 사정파 회장님과 서울대 성낙인 총장님께 추천하여 자랑스런 동문들을 위한 학술, 봉사, 참여분야 표창패를 각 세 부문씩 수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뜻에서 지난 2년간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 동문님들께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미주동창회에서 서울-총동창회 사정파 회장님과 서울대 성낙인 총장님께 추천하여 자랑스런 동문들을 위한 학술, 봉사, 참여분야 표창패를 각 세 부문씩 수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설을 듣는데서 끝난다면 너무나 아쉽다. 나부터가 그렇지만 평의원 회의에 참석 하려면 패장은 개인의 경비를 초래하게 된다. 동창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것도, 매년을 참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동창회를 사랑하는 평의원님들이 진정으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마련해드려야만 할 것이다.

본인은 그동안 여러 원로 동문님들을 만나 왔고 그분들이 은퇴 후라도 모교와 동창회에 기여할 길을 염원하시는 것을 들어 왔다. 우리는 이런 원로 동문님들의 염원과 그분들이 평생 뒀으신 경험과 지혜를 후손, 특히 우리의 젊은 동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림이 마땅하다.

오인환 회장께서 시작한 '멘터' 프로그램이 이런 기회의 좋은 방법이라 믿으며 우리 동창회는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함이 마땅하다.

영광스럽게도 본인은 지난 6월 20일 필라에서 있었던 미주 총동창회 연례 총회에서 차기회장 (2017 - 2019)으로 선출되었는. 앞으로 2년간은 새 회장님인 손재욱 동문을 도와서 우리의 사랑하는 미주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할 것이며, 2년 후 본인의 임기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여야겠다. 그리고, 현재 조지존 동문들의 참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우리의 동창회가 '동문들이 원하는, 동문들을 위한, 동문들의 동창회'가 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주필칼럼〉

손재욱 회장의 비전, 동창회보의 나아갈 길



정홍택 (상대 61)

무엇보다도 우선 필라델피아(이하 '필라'로 표기함)에서 개최된 제 24차 평의원의회의가 시종일관 화기에 애한 가운데 3일의 일정이 진행되는데 대하여 박수를 보낸다. 매년하는 행사인데 무슨 자화자찬이냐고? 그렇지만 올 해는 박수를 쳐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2년 전, 평의원들이 필라 출신 손재욱 의원을 '차차기'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필라같이 작은 도시 출신의 젊은 여자 후보(77학번)에게 미주총동창회회장직을 맡길 수 있느냐는 반문이 선거 전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도시 규모, 동창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간 미주총동창회에서의 기여도를 따져보면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할 수도 없다. 전임 열 두 분 회장들의 연령, 경력 및 활동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제 집 식구들인 필라 동창들 간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동창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작용 선거 운동)을 펼쳐서 많은 타 지역 평의원들을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관찰해 보면,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적 심정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재임 2년 중에 신문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국 평의원회의의 준비가 허술해서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재난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의 여신(女神)은 필라에 미소를 보냈고 손재욱 의원은 앞으로 2년간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회장 투표시 이 여신(女神)은 눈을 감고 홀(笏 Scepter)을 필라에 내밀었는가? 아니면 제반 조건을 다 수렴한 후에 눈을 똑바로 뜨고 판결

을 내렸는가?

나는 그 해답을 아래의 네 가지 면에서 찾고자 한다.

첫째로 우선 이번 24차 평의원의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필라로 오실 때, '정말 필라팀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적 마음이 들지는 않았었는지요?”

“3일 후 귀가길에서는 이런 걱정이 모두 해소되고, 'O.K. 됐어. 필라팀은 잘 해낼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드셨는지요?”

첫 날 환영 연회, 둘째 날 전야제, 각 지부 장기자랑, 셋째 날 평의원의, 성김 대사의 연설을 들은 만찬회 그리고 마지막 날 석별의 정을 나눌 때까지 모든 행사가 물 흐르듯이 진행되었고 모두가 환한 웃음의 얼굴들이었다.

이 모든 절차를 지켜보며 나는 손재욱 회장의 빈틈없는 준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평의원들께 묻고 싶은 것은, “이번 필라팀의 면면을 소개받으면서 종전 타 도시팀과 구별되는 점을 발견하셨는지요?” 이다.

그렇다. 손재욱회장의 스웬 발굴의 방법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깊이와 넓이가 엿보인다. 필라라는 좁은 우물을 벗어나 미주 어디서나 나의 분신이 될 만한 인재가 발견되면 과감히 그를 찾아갔고 설득했고 결국 나의 사람을 만들어 조직에 투입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이 젊은 피들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아나로그적 사고(Analog Thinking)'에서 벗어나 '디지털적 행동(Digital Action)'을 지향하는 손재욱 회장의 장기 비전(Long Term Vision)의 발로라고 본다. 실제로 회의 진행도 장소와 시간을 압축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성 방법을 선호한다.

셋째로 손 회장은 신문 발행에 있어서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을 지양하고 <쌍방향 대화>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칼럼들을 신선했다. 종래의 정형화된 에세이식 글에 대한 댓글 형식의 짧은 소감의 글도 올릴 수 있게 했다. 즉 <독자의 광장> 코너를 신설하여 전달(前月)에 게재된 글에 대한 독자의 소감을 몇 줄 정도로 투고하는 지상 대화의 광장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My Story & Your History>가 새로 선보인다. 미리 준비된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이 '세대간 단절의 시대'에 후

배가 선배의 인생 지혜를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넷째로 순회장은 현재 대부분 독자들의 고통하여 유념하여 상실 (부고란)을 신설할 것을 제의하였다. 종전에는 소위 사회 유명 동창들의 부고만이 기사화 되었다. 순회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듯이 미주에 살고있는 동창이면 누구나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이 전국에 널리 산재해 있어 종종 만날 수는 없어도, 부고(訃告) 소식 만큼은 꼭 알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부고란>은 매일 고정 여백이 될 것이다. 지부 동창회장들은 자기 도시의 부고소식과 더불어 (1) 고인의 사진 (2) 약력 (3) 특기 사항을 기재하여 필라 편집위원회에 보내면 된다. 돌아가신 분이 없는 달은 좋은 달이니 그 스페이스에 좋은 시(詩)가 소개될 것이다.

끝으로 손재욱 회장에게 희망한다. 평의원들이 순회장에 23년 전 총동창회의 회장이라는 직분을 맡기는 모험(?)을 한 그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순회장은 77학번 여성으로서 나이도 어리지만 그간 평의원 활동경력도 미미하다.

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조건 속에서 감히 출마를 결심한 그 마음 밑바닥에는 '이제 우리 조직도 달라져야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이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순회부가 선거공약을 발표할 때, 많은 의원들은 공약에 공감했다기 보다는 그 젊은 기개를 높이 샀다고 본다. (장미빛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점을 임기 내내 명심하고 앞으로 2년간 새로운 전통과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마지막 인사는 미주 동창회원 모두에게 드리고 싶다. 동창회는 회원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유기체이다. '사랑'이 화비납부로 표시된다면 '관심'은 '회보에 나의 글 보내기'로 나타난다. 정식의 글이 구차스럽다면 이제부터는 댓글도 대환영이다. 매일 물을 주어 화초를 살리듯, 매달 한 두마디의 댓글이 글쓰이에게는 보람, 신문 제작진에게는 기쁨, 읽는이에게는 '나도 한 마디 할까?' 하는 충동을 주니 이야말로 일석삼조(一石三鳥)가 아니고 무엇일까?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는 동문들에게 동창회보가 시원한 소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펜을 놓는다.***

세계 속의 서울대
국제화 사업

모교 서울대에서 추진 중인 국제화 사업을 소개한다. 2010년부터 진행중인 2차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교류협정 체결

세계대학랭킹 200위권 내 세계 유수대학 중 협정 미체결 대학과 중점적으로 교류협력 체결하고 아프리카 등 저개발 지역 대학과의 MOU를 통해 지식 및 인력을 공유하여 세계선도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신문명 프로젝트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전략적 교환학생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서울대학교의 해외파견 교환학생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해외대학에서의 수학경험을 늘리고, 다양한 해외기관과 연계하여 해외대학에서의 방문학생 파견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향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해외 수학기회를 대폭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장학제도 및 외국대학과의 협정 등을 확대개선하고 있다.

3.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외국인 유치 국가의 다변화, 입학사정관제도, 유관기관과 연계 확대 및 홍보 강화, 유학생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귀국 후 추수지도 강화 등을 통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4. 국제하게강좌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는 국제하게강좌는 한국학과 아시아학 관련하여 약 30여개의 과목을 중점적으로 개설하여 타 대학 하게강좌와 차별화를 두고, 내실있는 교육내용을 통해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학이를 통해 영어강의 활성화,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5. 외국인 우수 학생 장학 프로그램

아시아 지역 우수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인 실크로드 장학프로그램 및 GSFS(Graduate Scholarship For Excellent Foreign Student), 경제협력기구 및 개발원조위원회 원조 수혜국 출신 학부생에게 지원하는 Glo-Harmony 장학프로그램 등 운영하여 지한 고급인력 양성에 기여한다.

6.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교수 유치 프로젝트

해외 석학들을 본교 교수로 채용하여 서울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해외석학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연구환경 선진화도 추구하고 있다.

7.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을 세계 유수 연구소와 기업, 국제기관 등에 단기 파견하여 최신 지식과 기술, 교양 및 외국적 지혜를 습득하게 하고, 국제적 실무경험 및 세계적 안목을 배양시킨다.

8.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정례화 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대학의 역할을 제고하고, 학술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BESETO-HA(북경대, 서울대, 동경대, 하노이대 네트워크), 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EARU (Association of East Asian Research Universities), WC2(World Cities World Class Universities Network) 등에 가입하여 활발한 참여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문 분야별 특화 대학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다.

9. I-Office 운영

증가하는 외국인 교수·학생들의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On/Off-Line Community로서의 공간을 국제협력본부에 마련하고 있다.

10. 해외사무소 운영

교육·연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미주지역 거점으로 교수·학생의 국제교류를 위한 매개체 역할과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을 하기 위하여 LA에 미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 본부 사이트 참조)***



▲ 성낙인 총장과 최영진 전임회장, 구재욱 회장

올해 호암상 김성훈 서울대 교수 등 6명 수상

호암재단(이사장 손병두)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5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호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상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공학상 김창진 미국 UCLA 교수 △의학상 김성훈 서울대 교수 △예술상 김수자 현대미술작가 △사회봉사상 백영심 간호사 등 5명이다.

수상자에게는 각 3억 원의 상금과 순금 메달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국내외 분야별 저명 학자·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37명의 엄격 검토와 외국 석학 30명의 자문평가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노벨상 수상자 2명 등 외국 석학 4명이 심사회의에 참여해 후보자 업적을 국제적 차원에서 검증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권옥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장은 “수상자들의 탁월한 업적은 우리가 자랑하며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동시에 정신적인 스승이 되고 국민에



▲ 성낙인 서울대 총장과 Rebecca Blank 위스콘신 주립대 총장(가운데) 및 관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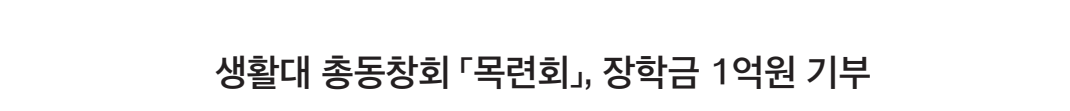
위스콘신대학교와 교류 협의

본교는 위스콘신대학교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협의하였다.

성낙인 총장은 2015년 6월 2일 (화) Rebecca Blank 총장과 접견을 갖고 양 대학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양 대학이 대학본부 차원에서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교수 및 방문연구원 교류, 공동강의 등에 대해서도 의

견을 나눴다. 또한 위스콘신대가 전 세계 여성의 삶 개선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4W Initiative(Woman & Wellbeing in Wisconsin and the World)'에 서울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날 접견에는 국제대학원 박태호 교수, 공과대학 박용태 교수, 자연대 노정혜 교수, 김재영 협력부처장 (공과대학) 등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위스콘신대



생활대 총동창회 「목련회」, 장학금 1억원 기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후배들을 위해 마련한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2015년 5월 18일(월) 서울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을 비롯해 생활대 총동창회 최영진 전임회장과 구재욱 회장, 생활대 여정성 학장 등 주요 학내 인사가 참석했다. 1956년 「목련회」라는 명칭으로

발족한 생활대 총동창회에는 그동안 학제 개편에 따라 사법대 가정교육과 졸업생, 가정대학 졸업생, 생활대 졸업생들이 함께 모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모교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성낙인 총장은 “생활대 동문들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다”며 “사랑하는 모교 후배들을 위해 특별히 동

문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은 우리 학생들이 지식과 공공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한 활동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생활대 총동창회는 이밖에도 매년 졸업 50·40·30·20주년을 맞는 개인과 가족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다”며 “사랑하는 모교 후배들을 위해 특별히 동



▲ 2015년 삼성 호암상 수상자 (왼쪽부터) △과학상 천진우 박사(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 △공학상 김창진 박사(미국 UCLA 교수) △의학상 김성훈 박사(서울대 교수) △예술상 김수자 현대미술작가 △사회봉사상 백영심 간호사 (사진=삼성 제공)

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재단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스펀 리던 노벨상위원회는 “실례는 최고의 스승으로 수상자들은 성공보다 실패가 더 진숙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끌어안는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지난달 29일 김수자 작가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연세대와 서강대, 부산과학고, 대구과학고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강연한다.

호암상은 1990년 이근희 삼성회장이 삼성 창업자인 호암(湖巖) 이병철 회장의 인재 제일주의와 사회공익 정신을 기려 제정됐다. 올해까지 총 127명이 선정돼 199

억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이 부회장이 지난 달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직에 오른 뒤 참석하는 첫 공식행사로 특히 주목받았다. 이 부회장은 와병 중인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을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했다. ***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박현애 교수, 미네소타대학서
‘기조강연 및 우수학자상’ 수상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가 4월 29일 미국 미네소타대학 동창회관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정보학과 대학원 프로그램 개설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동문을 대표하여 기조강연을 하였다. 박현애 교수는 1964년에 개설된 이 프로그램에 1984년 입학하여 1986년에 석사학위, 198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조 강연에 이어 박현애 교수는 이 대학에서 2012년부터 매년 보건의료정보학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우수 학자를 1명 선발하여 수여하는 “The Lael Granmer Gateway Distinguished Lectureship” 상을 수상하였다.

박현애 교수는 2년 전 세계의료정보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올 8월부터 회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대 본부〉

우리는 공과대학 여성 동문입니다

이 시대의 우먼파워, 알파걸(α-girl)을 찾았다면 단연코 '서울 공대출신의 여성 동문들'을 주목하라...

누적 여학생 3000명 돌파



제 1회 윈즈데이 행사

서울 공과대학에 첫 여학생이 입학한 이래 2006년 공대 출신 여학생 1000호가 배출되었다. 2015년 현재는 3000명을 돌파했다.

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숙원의 결과다. 류전희 현 공대 여성동창회장(건축 82학번)은 "과거에는 여성 동문의 수가 매우 적어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는 기회가 적어...

종횡무진 서울공대 우먼파워



지순 여사(건축학과 54학번)

공과대학 여성동문

이번 행사에는 여성 최초로 서울 공대가 수상하는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을 수여한 지순 여사(건축 54학번)가 연사로 나섰다.

우리만의 고민 함께 나눠요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 시간에는 여성 동문들만의 고충과 이야기를 공유했다. 토론에는 학부 생부터 교수, 협회 회장까지 각기 다른 분야, 다른 연령층이 함께하여...

서 나온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패널로 참여한 배수연(섬유공학부 91학번) 한국3M 의료사업본부장은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며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이 있음에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 여성 동문의 고충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토론장

여럿이 그리고 또 같이

행사에 참가한 재학생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제가 속해있는 동아리에서 선배님들께 연락드려 소규모로 멘토링을 받는 행사가 있었지만,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해 선배님들을 뵙고 싶습니다."(박도현, 컴퓨터공학과 12학번, 여성공대생 동아리 H20회장)...

대학교 옆 박물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그 안에 숨겨진 보석을 하나 꼽으라면, 나는 단연 '서울대학교 박물관'을 고르고 싶다. 그곳은 서울대학의 역사와 얼이 스며든 공간,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공간, 교육과 문화의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아로새겨진 곳



박물관 내 광개토태왕비 탁본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과연 서울대학교의 역사, 그 자체다. 서울대학교가 개교한 1946년 같은 해, 서울대학교 부속 박물관이 탄생했다. 과거에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과 학문들은 박물관이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 주었다.

관)도 박물관 현대미술부에서 출아한 것이다. 현재 3개의 상설전시관과 2개의 기획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에는 책에서만 보았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수요일은 박물관 가는 날



박물관 내 상설 전시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다면 '수요교양강좌다'. '박물관(博物)'이란 말에 걸맞게 고고학, 미술사, 인류학, 자연사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다채롭게 제공한다. 쉽고 유익한 대표 시민 교양강좌로 알려져 있는 이 강좌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이 대상이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서울대 박물관 외관

박물관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여 조용히 관람하는 것이 예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떤 철칙에도 예외가 있기는 마련.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그 안의 생명력을 나누고 싶어 한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정기적으로 '박물관 체험교실'을 개최해 어린이들을 박물관에 초대한다.



세미나 > 서재필 기념관 방문 > 전야제 만찬(18-19일)



제24차 전국 평의원회의 > 저녁만찬(20일)



평의원회 이모저모



예배 > 골프 > 저녁만찬(21일)

수상 Award



01 서정화 총동창회장상 : 공로상(제12대 임원단)

- 오인환(문리 63) 회장, 이재진(문리 55) 부회장, 하용출(문리 67) 한국학 팀리더, 김정식(농대 85) 사업국장, 박상근(법대 75) 법률고문, 권철수(의대 68) 모금위원장, 이항렬(법대 57) 논설위원장, 공순옥(간호 66) 부회장, 손재옥(가정 77) IT 위원장, 백 선(법대 58) 회보주필



성 김 대사에게 감사패 증정

02 서정화 총동창회장상 : 공로상(지역동창회 전회장)

- 곽승용(의대 65) 뉴욕 회장, 구명순(간호 66) 하트랜드 전회장, 김기린(사대 75) 오레곤 전회장, 김동현(상대 66) 조지아 전회장, 김홍수(농대 75) 하와이 전회장, 김호범(상대 69) 시카고 전회장, 박상원(음대 69) 뉴욕 전회장, 변우진(인문 81) 미네소타 전회장, 이서희(법대 70) 남가주 전회장, 이장우(문리 72) 북가주 전회장, 이호성(공대 72) 휴스턴 전회장, 장수인(음대 76) 뉴잉글랜드 회장, 정신호(자연 78) 캐롤라이나 전회장, 조동진(공대 69) 플로리다 전회장, 최승수(자연 87) 샌디에고 전회장, 최 연(공대 70) 달라스 전회장, 한중희(공대 80) 필라델피아 전회장, 함은선(음대 77) 워싱턴 DC 전회장

06 등문 우수 문학 작품 수상자

- 김택수(의대 57) : 시 부문 우수상 (먼지), 오(조)보완(법대 53) : 시 부문 장려상 (불 창가의 기적), 김규호(의대 58) : 수필 부문 우수상 (신들린 듯 했던 어느날), 이원택(의대 65) : 수필 부문 우수상 (뿌리 내리기), 김용영(문리 52) : 수필 부문 장려상 (외씨 버선), 김석민(사대 55) : 수필 부문 장려상 (천송이의 백합), 서안희(간호 63) : 수필 부문 장려상 (나의 아버지 서승표)



오보완 (법대 53)

03 서울대 미주 동창회장 표창패 증정

- 학술 분야 | 김중만(공대 85) : Computer Black Box 개발, 하택집(자연 86) : NAS 회원으로 선출, 윤충년(미대 05) : Ron Hubbard 차세대 작가 선정, 봉사 분야 | 최효원(음대 62) : 북가주 차세대 전문 음악가 양성, 원미량(미대 65) : 북가주 미술전시회로 고교생 20명에게 장학금, 참여 분야 | 이병준(상대 55) : 미주동창회 대도약 기금 기증, 노명호(공대 61) : 서울대 발전기금 기증, 이상강(의대 70) : 미주동창회 대도약 기금 기증

07 서울대 총동창회 표창패 증정 - 서정화 총회장 (오인환 회장 대행)

- 학술 분야 | 임준원(공대 77) : NASA/AMS - Helicopter Rotorcraft 연구선도, 봉사 분야 | 변재준(의대 78) : Seattle에서 4000시간 이상 무료 의료봉사, 참여 분야 | 권기현(사대 53) : 미주동창회 후원금 모금에 크게 공헌

08 서울대 총장 표창패 증정 - 성낙인 총장 (오인환 회장 대행)

- 학술 분야 | 정광훈(공대 01) : MIT 신임조교수로 가장 많은 \$2.5 Mil 상당의 연구비를 받고 Searle Scholar 에서 유능한 과학자로 선정, 봉사 분야 | 김사직(상대 59) : 시카고에서 한국 및 미국문화 교류증진으로 오바마 대통령상 수상, 참여 분야 | 고광선(공대 57) :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본인고 친인척 서울대 동문들위하여 의자10개 (\$10,000 상당)를 기증

04 본부임원 : 공로패

- 배규영(사대 68) 감사위원장, 임종식(의대 51) Mentor, 한재은(의대 59) 제12대 회칙위원장, 서종민(공대 84) 제11대 회칙위원장

05 본부임원 및 직원 : 감사패

- 김원영(미대 82) webmaster, 이기준(본부직원) 편집주간

각 지부별 사진 Chapter



제24차 미주 평의원 회의 상보

제13대 손재옥 회장 취임, 운상래 차기 회장 선출, Brain Network Symposium, 각 현안 원만하게 토의

미주 동창회 제24차 전국 평의원 회의의 행사가 필라델피아 The Double Tree Suites by Hilton Hotel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도착 및 등록 후, 19일 화려하게 개막식과 함께 제 4회 브레인 네트워크 심포지움, 20일 제 24차 평의원회의, 등의 본행사와 서재필기념관 방문, 만찬과 함께 한 각 지부의 장기자랑, 평의원 가족들의 필라델피아, 그리고 21일 골프대회, 등 여러 행사로 이어진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마쳤다.

이 속속 모여들어 등록하기 시작하고 1년만에 다시 만나 서로 반가운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오후 6시 제13대 손재옥 미주 총동창회장 초대로 인근 한식 레스토랑 '아리수'에서 환영만찬이 있었다.

▶Brain Network Symposium (19일·금) =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이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었다.

▶서재필 기념관 방문(19일·금) = Symposium이 끝난 뒤 오후 4시경 동문들은 필라델피아 서쪽 Media에 위치한 송재(松齋)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등록(18일·목) = 오후 4시 반경부터 각 지역 평의원과 가족들

▶전야제 및 공로패·감사패 증정, 지역 동창회 정기자랑 = 오후 6시 반부터 만찬 겸 각 지부의 흥겨운 장기자랑으로 이어진 전야제가 열렸다.

▶평의원 본회의(20일·토) = 오전 9시부터 Calvary Vision Center에서 제 24차 평의원회의 본 회의가 시작됐다. 오전에는 토의 안건들을 결정했고 오후에는 오전에 결정된 각 안건에 대해 본격적인 토의와 질의 응답, 표결 등이 속개됐다.

또한 차차기(제14대) 회장으로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운상래(수

의대 62) 전 회장이 선출됐다. 제12대 오인환 회장의 이임사에 이어 미주 동창회회가 손재옥 13대 신임회장에게 인계됐으며 손재옥 회장은 취임사와 함께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제13대 임원진을 소개함으로써 본 회의를 마쳤다.

한편 평의원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평의원 가족들은 필라델피아 관광 일정에 참여했다.

▶저녁 만찬(20일·토) = 5시 30분부터 시작된 연회에 참석했다. 각종 해산물, 고기, 채소, 랍스타 등의 고급스런 한식 뷔페와 푸진한 디저트의 풍성한 저녁 식사

후 김성 전 주한미대사의 Key-note 연설이 있었다. 연설 후에는 몇가지 민감한 한반도의 상황: 한일관계, 한미관계 및 미국과 동북아시아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김 대사의 답변과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모교 성낙인 총장과 서정화 모교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전해온 상패들을 오인환 회장이 전달했다.

▶서정화 회장배 친목 골프대회(21일·일) = Harleysville, PA 에 위치한 Lederach Golf Club 에서 서정화 총동창회장배 친목 골프대회를 가졌다. 전날 밤의 폭우 후 화씨 9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동문들은 진지하게 대회에 임해 골프를 즐겼다. 대회가 끝난 뒤 손재옥 회장 자택에서 시상식 겸 만찬으로 이번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손재옥 회장 ‘아리수’로 저녁초대

매년 6월 개최되고 있는 전국 평의원 회의는 미주 동창회의 발전은 물론 모교와 유대 강화, 각 지역 동문들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 아주 필요한 행사다. 그런 한편 해마다 한 차례씩 멀리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미주 동문들의 반가운 해후의 장이 되고 있다.

▶등록 = 제12대 미주동창회 임원진은 워싱턴 DC에서 18일 오후 4시경 hotel에 도착했다. 이미 오전에 도착한 동문들과 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동문들은 오후 4시 이후부터 속속 모여들기 시작해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하는 인사로 서로 반가워하며 소파에 앉아 이야기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전구(농대 60) 제9대 미주 동창회장은 “서울 출장길에 서정화 총동창회장상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바랐으나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전 회장이 서울을 다녀왔다는 말에 동문들 중 일부는 “혹시 MERS(중동호흡기증환 증후군) 가지고 온 것 아냐? 나한테서 좀 떨어지라고 마스크를 써야겠는 걸...” 하면서 joke를 해

이전 회장을 잠깐이나마 당황스럽게, 또 주변을 즐겁게 했다. 부인 방경숙(음대 66) 동문과 함께 참석한 오하이오 동창회 김용현(경영 59) 교수(신시내티데)는 “올해는 꼭 동창회 차원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지난 해 평의원회의 때 다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실토했다.

캘리포니아의 조동준 박사(의대 57)는 “허리 병이 완치되지 않아 참석이 어려웠으나 김성 전 주한 미국대사가 Keynote Speaker로 초빙돼 그의 강연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뉴욕을 경유하는 여행 중 주사를 맞으며 왔다”고 해 주변을 감동시켰다.

오후 6시 30분 경 30여명의 참가 동문과 가족들은 한식 레스토랑 ‘아리수’에서 손재옥 회장이 주재하는 저녁 만찬을 함께 했다. 손재옥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각 참가 동문들과 가족들의 자기 소개가 이어졌다.

이날 Brain Network Symposium에 강연 학자들도 대부분 참석했다. 이중 미주 평의원 회의에 처음 참가한 Hawaii 대학의 이상협(경제 82)교수는 “그동안 미주

동창회에 한 번도 참석할 일이 없어 송수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와이 동창회는 규모 자체도 작은 데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참가 자체가 쉽지 않은 점을 이해해주시시오”하고 양해를 구했다. 지난 해인 제23차 미주 평의원회의의 symposium에서 처음 강연해 준 Stanford대의 문유미(외교 85) 교수는 어린 딸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문 교수는 “미주 동창회가 이처럼 훌륭한 행사를 하는 줄을 지난 해 처음 알게 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라고 말했다.

Washington대의 하용출(문리 67) 교수는 19일 오전에 개최된 symposium의 강연 학자들과 session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의 전방남(상대 73) 회장은 이날 다소 늦게 도착, 인사말을 통해 응시(?)를 구했다. 그러자 부인 김경숙(가정 70) 동문과 함께 온 하트랜드 동창회 이상강(의대 70) 회장이 “손 회장이 저녁을 샀으니 전 회장은 늦게 온 죄로 발주를 사야 한다”고 말해 주변을 웃음발로 만들었다.***



제24차 미주 평의원회의의 (19일)

Brain Network Symposium

19일(금) 오전 8시부터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이 시작됐다. Claremont McKenna College 의 이재진(문리 55) 명예교수의 개회선언과 오인환 회장의 인사말, 제12대 미주 동창회 김정식 사업국장의 행정지원으로 오전과 오후 session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한미관계의 발전 과정: 해방 70주년의 회고와 평가’ 분야로 4명의 동문학자가 각각 발표를 했다. California State Univ. 의 유의영(사회 56) 명예교수가 ‘미국인의 한인사회’, Hawaii 대학의 이상협(경제 82) 교수가 ‘한미 경제관계의 역사와 현황’, Washington대학의 하용출(문리 67) 교수가 ‘한국의 민주화와 미국의 역할, Stanford 대학의 문유미(외교 85) 교수가 ‘미국 안의 한국역사 현주소’를 발표한 것이다. 주제발표 후 이재진 교수에 의한 Panel Discussion에서는 질의와 응답시간이 주어졌다.

이어 오후 session에서는 ‘의학계열(SNUAA-USA Medical Campaign Project)’ 분야로 박찬형(의대 56) 교수가 재미 한인 동포의 높은 위암 사망률; 우리 지식인 지도층이 협력해 해결할 수 있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와 더불어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한수웅(의대 55) 박사가 ‘B형 간염과 간암 퇴치 운동’을 주제로 짧게 특별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이상협, 하용출, 이재진, 문유미, 유의영, 박찬형/위 왼쪽부터-오인환, 손재옥, 김정식)***



제24차 미주 평의원회의의 (18일) : 각자 소개 시간



제24차 미주 평의원회의 (19일) : 전야제 - 12대 임원들의 흥겨운 춤과 노래

6월 19(금)일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방문한 후 오후 6시부터 Hotel에서 전야제가 있었다.

이 자리는 제12대 정평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오인환 회장과 손재욱 차기회장, 전방남 필라델피아 동창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참석한 평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됐으며 오인환 회장은 제12대 임원진을 소개한 뒤 공로패와 감사패, 우수문학상 음모 행사에서 입상한 동문들에 대해 상패를 증정했다.

시상식 후 필라델피아 동창회 박형준(공대 87) 동문의 사회로 본격적인 지역 동창회의 장기자랑을 겸한 오락 시간이 벌어졌다. 오프닝프로그램으로 박형준 동문의 막내딸 박세현 양 (11세)이 나와 Faure의 Fantasy곡을 멋지게 flute 연주했다. 박양은 지난 6월 8일 개최된 동부지역 한국일보 풍쿠르에서 flute연주로 우승을 차지한 재원이자.

박 동문은 “비오는 날 빗자루를 들고 나오는 여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쓸데 없는 여자)”는 gag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gag를 아주 구수하게 늘어 놓으며 장내를 인도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정선주(간호대 65) 동문은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요가운동의 시범을 보여 큰 인기를 끌었다. 정선주 동문은 “요가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라며 “평소 미국 노인들의 골절사고를 많이 봐 왔는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 할머니로서의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필라델피아 동창회의 전방남 회장이 ‘엽전 열댓냥’, 이채진 교수 부인 감미자(음대 62) 동문이 ‘명에’, 남가주 동창회 박혜옥 회장이 ‘내 마음의 보석상자’, 강영배 동문이 ‘울라고 내가 왔다’ 등을 구성지게 불러주었다.

‘빨대 말리 던지기’라는 이색적인 즉석 경기도 열렸는데 뉴욕 동창회의 이진구 제9대 회장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진구 전 회장은 하모니카로 뉴욕 필하모니와 협연한 경력이 있을 만큼 하모니카의 특수 연주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날 크기 1cm에 불과한 하모니카를 들고 나와 베토벤 심포니 9를 훌륭하게 연주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전회장은 애플 곡으로 기존의 하모니카로 ‘창 밖의 여자’ 등

을 힘차게 연주해주었다.

워싱턴 DC동창회의 장경태 회장은 아주 재미있는 ‘가가가’로 이어지는 특유의 기발한 ‘경상도 사투리’를 들고 나와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커피 빼빼로 가장 짧게 먹기’ 대회에서는 오인환 회장 부부와 손재욱 회장 부부가 참여해 오인환 회장 부부가 승리했고 ‘구구단 경기’에서는 손재욱 회장의 부군 Timothy Haahs가 컴퓨터에 가까운 눈부신 연산속씨(?)로 승리했다.

마지막으로 12대 임원진의 노래 자랑과 13대 임원진의 노래 자랑이 이어졌다.

이날 가장 원로 동문으로 시카고 동창회의 이용락(공대 48) 제6대 회장이 소개됐다. 사회자 박형준 동문은 “필라델피아는 예로부터 빼대같은 고장으로 빼대같은 원로 동문을 우대한다”며 Macy상품권을 드렸다.

이에 이용락 전 회장은 “아직도 마음은 55세로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는 지금까지 한번도 빠진 적이 없이 참가했는데 해마다 후배님들을 만나는 재미도 좋아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되는 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제24차 미주 평의원회의 (19일) : 서재필 기념관 방문

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이 끝난 오후 4시경 참가 동문과 가족들은 Media에 위치한 송재(松齋) 서재필(1864.1.7~1951.1.5) 박사의 기념관 ‘Philip Jaisohn Memorial House’로 향했다.

서재필 기념관에서는 서재필 기념재단의 최현태(문리대 62)회장이 직접 서재필 박사에 대해 비디오 영상과 함께 해설해 주었다.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둘러본 동문과 가족들은 한결같이 “이런 필라델피아 미주 평의원 회

의 일정에서 정말 유서깊은 귀중한 사적지를 돌아보게 돼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모 동문은 기념관의 모든 것을 비디오로 촬영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서재필기념재단(Philip Jaisohn Memorial Foundation)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서재필기념관은 근대 개화기의 선구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한인 최초로 미국 시민권과 의사 면허를 받은 서재필 박사가 1925년부터 1951년까지 거주했던 자택이다. 1987년 구입

후 1994년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로부터 역사적인 사적지로 공인 받았으며 2004년 전면 보수 후 재개관했다. 서재필 박사의 역사적 사진 기록과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서재필 박사에 관해 출판된 여러 서적들과 특별제작된 우표 등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재필 기념재단은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1975년 설립됐으며 서재필 의료원, 사회복지센터, 가정간호센터, 서재필 건강보험, 서재필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24차 미주 평의원회의 (20일) : 작은 음악회

6월 20일(토) 저녁 만찬 후 전방남 필라델피아 동창회장이 주관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이 음악회에서는 피아니스트 Dr. Carl Cranmer (West Chester University 교수) · 소프라노 이인영(음대 87, West Chester University 교수) · 심희진(음대 90, Arcadia University 교수) · 테너 변진환(음대 94, CUNY 교수) 동문 등이 화려한 무대를 장식해 주었다.

Dr. Carl Cranmer의 피아노 반주로 심희진 동문은 J. Strauss의 ‘Adele’s Laughing Song’을, 변진환 동문은 F. Lehár의 ‘Dein ist mein ganzes Herz’, 이인영 동문은 E. Tagliaferrri의 ‘Passione’을 불러주었다. 이어 이인영 · 변진환 동문은 F. Sarori의 ‘Time to Say Goodbye’를 너무나도 멋진 화음으로 들려주어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Dr. Cranmer의 ‘3 Preludes by George Gershwin’ 피아노 연주 후, 3인은 우리 귀에 익은 ‘남촌’, ‘아리랑’에 이어 ‘선구자’를 비롯해 ‘Moon River’, ‘You raise me up’ 등을 리드하며 동문들과 함께 불러 거듭 힘찬 앵콜을 받기도 했다.

동문 중 한 사람은 “음악으로도 유명한 도시답게 이렇게 훌륭한 콘서트를 관람하게 돼 참석한 보람이 크다. 내년에도 꼭 참석하겠다”고 다짐했다.***

제24차 미주 평의원회의 (21일) : 주일 예배

평의원 회의 본 회의 일정이 끝난 6월 21일(일) 서정화 총동창회장배 친선 골프대회장으로 가기 전 9시경 20여명의 동문들이 Calvary Vision Center에 모여 Timothy Haahs(한국명 하형록) 목사의 인도로 주일예배를 드렸다. “Fear of God”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그 마음이 이웃에게까지 전달되는 사랑의 공동체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본인의 간증과 함께 전했다.

이날 간증을 들은 제11대 김은종 회장은 “손 회장의 부군이 이렇게 훌륭한 본인 좋은 미처 몰랐다. 우리 동문 사이에서도 정말 귀감이 될 분”이라고 감탄했다. 한편, 하형록 목사의 저서 P31(잡인 31장)가 지난 5월 말, 한국의 두란노서원에서 출판되었다.***

제24차 미주 평의원회의 (21일) : 서정화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대회 후 손재욱 회장 자택에서 시상식겸 만찬



21일 (일요일) 인근 Harleysville의 Lederach Golf Club에서 서정화 총동창회장배 친목 골프대회를 가졌다. 대회는 필라델피아 골프동호회 한중희(공대 80) 회장에 의해 출전 각 팀이 구성되고 rule이 제시됐다. 약간의 바람이 불어주었으나 오후 9시 0도를 넘는 높은 기온과 습도 속에 참가 동문들은 모두 최선의 기량을 발휘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북가주의 최경선(농대 65) 동문이 우승해 영예의 서정화 총동창회장배 순회배의 주인이 됐다. 최경선 동문은 65학번의 적지 않은 연배나 체격이 우람하고 눈빛이炯炯해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은 force(?)를 보이더니 아니라 다름까, champion을 무려 8타나 제치는 막강한 실력으로 올해의 title을 쟁겼다.

이날 대회의 입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Medalist = 최경선(농대 65) ▶Champion = 한중희(공대 80) ▶2등 = 제영혜(가정대 71) ▶3등 = 지재원(사대 68) ▶Lucky 상 = 황선희(공대 74) ▶Closest = 장경태(사대 75) ▶Longest = 서갑식(공대 70)***



제24차 미주 평의원회의 (20일)

제24차 평의원 본 회의

Calvary Vision Center에서 오전 9시부터 미주 평의원 회의가 시작됐다. 제12대 오인환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고가합창, 성원보고가 있었다.

오전에는 회의록 낭독을 비롯한 안건내용에 대해 설명, 의견을 제시하고, 오후에는 오전에 제의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결의를 했다. 이어 차차기 미주 동창회장의 선출을 비롯해 제12대 동창회장 임명사, 동창회기 인계, 제13대 회장 취임사, 차차기 제14대 회장 인사, 제13대 회장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임원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있었던 회의 내용 중 부분별로 요점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 오전 Session 〉

▶성원보고는 전체 평의원 참석자가 Proxy 포함하여, 109명으로 73.25%를 차지해 의사 표결 정족수를 넘어 정식으로 성원, 개회가 선언됐다.

▶제12대 오인환 회장, 손재욱 차기 회장, 전방남 필라델피아 동창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정평희 사무총장에 의해 제23차 회의록이 낭독됐다. 제23차 회의록은 지난 2014년 6월 28일 버지니아의 Westin Tysons Corner Hotel에서 실시한 제23차 평의원 회의 결과다.

▶사업보고(오인환 회장) = 오인환 회장은 제12대에서 추진해 온 8대 공약에 대한 사업과 성과에 대해 조목 조목 자세히 열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6월 동창회보 참조)

▶IRS감사 대비 내부감사(배규영 감사위원장) = 배규영 감사위원장이 불참해 오인환 회장이 대신 보고 했다. IRS Audit에 대비해 Internal Audit를 실시한 것으로 전국 25개 지역 동창회 가운데 73%가 응답해 그 중요성을 고취했다.

▶포상위원회 보고(오인환 회장) = 오인환 회장은 “제12대 미주 동창회에서 동창회를 위해 봉사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되도록 많은 동문들에게 포상하려고 하다보니 비용이 5천 달러 이상 들게 돼 서울 총동창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절반 이상을 지원해 주었다”면서 서울 총동창회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오 회장은 “학술분야·봉사분야·참여분야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서울 총동창회와 미주동창회로 나누어 포상하는 제도를 위해 각 지역 동창회에 대상 동문 추천을 의뢰했으나 북가주 동창회에서만 추천이 들어왔다”며 “차후 지역 동창회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 추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Mentoring Program(김정식 사업국장) = 제12대 김정식 사업국장이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 국립보건원(NIH)의 임종식(의대 51) 박사의 도움으로 시작돼 총 7명의 mentor volunteers가 참여에 응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교 의대 재학생 1명이 이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12일 워싱턴 지역

에 와서 1개월간 현지 인턴십을 받고 귀국했다. 그는 귀국한 뒤 이에 대한 경험담을 보내와 6월 동창회보에 게재한 바 있다. 현재도 재학생 2명이 mentor와 연락 중이며 앞으로 모교 국제협력본부와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주류사회 및 한인사회 교류사업(공순옥 담당 부회장) = 제12대의 공순옥 담당 부회장은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Maryland 주, Howard시의 한인 노인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중요성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이 노인회에는 8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는데 회장이 동문(오광동·공대 52)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시 관계자와 협의한 끝에 2만5천여 달러의 그랜트를 받았다. 이 예산 중 일부를 매주 노인들의 건강과 소양을 위한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

주류사회와 유대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가장 난관인데 우선 한국음식 만들기에 미국 노인들을 초대했다. 만두, 떡(송편 등), 잡채 등을 직접 만들어 먹는 행사를 했더니 40명을 초청했는데 미국 노인들이 너무 좋아해 120여 명이 참가했다. 이것은 아주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런 방법부터 개발하면 미 주류사회와 유대관계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모교를 주류사회에 더 잘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rain Network, 대도약, 한국학(이채진 부회장·오인환 회장) = Brain Network사업에 대해서는 이채진 명예교수가 설명했다. 이를 요약하면 ‘이 사업은 제9대 송순영(법대 52) 회장 때 처음 시작됐는데 2차에서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3차에서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생명과학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들여다보건데 우리 동문들을 위해 귀중한 기회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학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해 하용출 교수와 오인환 회장에 의해 처음 제기됐는데 한국학 연구소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나 어느 연구소든 재정 때문에 운영이 대단히 어렵고 지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용출 교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동창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주 동창회가 지속해야 할 것이다.’

한편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윤상래(수의대 62) 전 회장은 발언권을 얻어 “Brain network Symposium을 모교 서울대강당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게 되면 미주 동창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차지하는 부분도 커질 것이며 모교와의 유대관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감안했다”고 대신 답변했다.



▲ Brain Network 의 하용출 교수

제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학 문제에 대해서는 오인환 회장이 보충설명을 했다. (13면 별첨기사 참조) 시카고 동창회의 조봉안(법대 53) 명예교수는 “Brain Network Symposium에서는 시기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나 한일관계 등도 다뤄줄 수 있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회보 편집위원회(장경태 편집위원장) = 장경태 편집위원장은 동창회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회보의 역할은 동문들간 커뮤니케이션이 큰 목적 중 하나라는 것. 장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달 편집의 방향을 잡아 원고를 수주해왔으며 독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좀 더 다양한 글의 게재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50~60대 이상의 동문들의 참여가 활발한 반면 그 이하 젊은 세대의 참여도를 끌어올리지 못한 점은 양

으로도 과제”라고 말했다. “지역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동창회 소식은 특히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특히 서윤석(의대 62) 박사님과 윤경의(공대 57) 박사님께서 적지 않은 연세임에도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미주동창회가 처음 시행한 ‘우수작품상 모집’ 행사는 처음 실시해 응모편수가 약간 적었으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커서 매년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omepage 개선(김원영 Webmaster) = Webmaster인 김원영(미대 81) 동문이 불참해 오인환 회장이 대신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단지 동창회보 검색 기능에 불과했던 기존의 snuaa.org에 5천 달러를 들여 크게 개선해서 동문 누구나 가입해서 글과 사진을 올리고 검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homepage는 자체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배너 광고(연 500달러) 유지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동창회의 조동준(의대 57) 박사는 “새로 개선된 homepage의 내용이 매우 좋아졌다. 그런데 이것이 공짜냐?”고 문의한 뒤 “그렇다면 앞으로 회비를 안내고 온라인으로 회보를 읽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동문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칙위원회 보고(한재은 회칙위원장) = 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회칙에 관한 일을 해왔다. 회의록 Appendix 3의 SNUAA-USA Bylaws Amendment History 중 10번 항이 그동안 다소 문제가 되어 은 proxy문제를 정의한 것이다. 종신 이사의 투표권도 기술돼 있다. 그에 관련된 조항이 5항과 7항으로 이를 종합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7명의 회칙위원 중 4명의 임기가 끝나 신임 회장이 추천해서 결정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4년으로 되어 있는 임기의 term이 선출 당시 다른 위원들의 잔여임기 차 등 통일을 위해 일부(2명)에 한해서 5년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발의됐다.

▶재무보고(류홍열 재무국장) = 지난 2년간의 동창회비와 각종 후원금, 광고비, 대도약 후원금, 종신이사회비, 고국 동창회 분담금 및 미주 지부 동창회 분담금 등의 수입과 지출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관약후원금이 지난해부터 ‘후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부 동문 중 ‘모교발전기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보다 높은 이자 수입을 위해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타 금융업체의 선택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오인환 회장은 “제9대 NY 평의원회의 때 결의한대로 risk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감안했다”고 대신 답변했다.

▶토의안건(오인환 회장) = 1. Nomination Committee 위원선출 2. Bylaws Committee 위원선출(4명) 3. 모교 발전기금위원선출(위원장 외 6명) 4.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 및 한국학 연구소 설립에 대한 보고 5. 미주 동창회 Medical Campaign Committee결성에 대한 보고 6. 평의원의 뜻과 어원 7. 미주재단과의 대화 결과보고 및 건의안 8. 기타 등이다.

1. 오인환 회장은 “Nomination Committee 위원 중 3명(전 회장, 현 회장, 차기회장)은 당연직으로 이번 임기가 끝나는 4명에 대해 후보를 선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연직 3명의 거주지역에서는 중복 인선을 할 수 없다.

2. Bylaws Committee 역시 4명의 인선이 필요하다.

3. 모교 발전기금위원 = 평의원 회의에서 직전 회장, 현 회장, 차기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4명을 선출해야 한다.

4. 한국학 연구그룹 지원 및 한국학 연구소 설립안 (13면 참조)

5. 한인동포 위암예방을 위한 Medical Campaign 위원회 구성안 - 박찬형 교수가 미주 내 우리 한인 동포 암환자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미주 동창회 내 Medical Campaign Committee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12면에 계속)

〈 오후 Session 〉

▶**인선위원, 회칙위원, 모교 발전기금 위원 선출** = 오인환 회장은 이에 대한 위원 인선을 모두 제13대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동의를 구했다. 이에 대해 평의원들이 대다수가 동의하고 재정을 받아 제13대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결의했다.

▶**한국학 연구소와 Medical Campaign Committee 설립** = (*한국학 연구소 설립에 대한 토론과 결정에 대해서는 별첨을 보십시오: 13번) Medical Campaign Committee설립에 대해 박찬형 교수는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보충 설명했다. 이어 오인환 회장은 “미주 의과대학 동문들이 1천200여 명이나 미주 동창회에 등록돼 있는 전체 동문들은 7천500여명이나 돼 미주 동창회가 이 끝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나 반대 의견이 없어 미주 동창회 차원으로 지원하기로 동의가 이뤄졌다.

▶**평의원의 뜻과 어원**= 오인환 회장은 “‘평의원’이라는 어휘에 대해 일부에서 일본식 표현으로 특히 젊은 층에게 거부감이 있어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의제기가

있어 모교 국문과 이종목 교수에게 어원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9세기 중반부터 중국에서 사용해왔으며 현재 일본에서도 사용 중으로 council의 뜻으로 쓰인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주재단과의 관계 경과보고** = 오인환 회장은 “지난해 홈커밍 데이 때 모교에 가서 서울대와 미주재단과의 관계에 대해 질의했으나 모교와 미주재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미주지역의 단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미주재단 이사장과 관계정립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미주동창회 모교발전기금 위원회 기능을 미주재단에 Outsourcing하여 서로 협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기타안건** = 뉴욕 동창회의 이전구 제9대 회장은 “51명의 종신 이사 중 작고하신 분의 이름이 빠진 분이 있는데 이것은 동창회의 역사이기도 함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빠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다른 동문들이 동의했고 오인환 회장은 고인들의 주소가 없어서 표의 맨 아래에 이름을 넣었다며 제13대

에서 복원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제14대 미주 동창회장 선출** = 제14대 차차기 미주총동창회 회장 후보로 제11대 김은중 회장이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윤상래(수의대 62) 동문을 추천했다. 김은중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인선위원 7명이 모두 윤상래 동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인환 회장은 “혹시 Floor Nomination으로 추천할 후보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으나 아무도 없어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반대 2명, 기권 한 명 외에 나머지 평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는 압도적인 표차로 윤상래 후보가 제14대 미주총동창회장으로 정식 선출됐다.

▶**동창회기 인계** = 오인환 회장은 제13대 손재우 회장에게 미주총동창회기를 인계했다. 이로써 미주동창회는 시카고의 제10대 송순영(법대 52) 회장 이후 다시 여성 동문으로 역사상 가장 젊은(가정학과 77) 동창회장 시대를 맞게 됐다.

▶**제13대 회장단 감사선출 및 예산안 심의**

▶**제13대 회장단 임원소개*****

〈 13대 예산안: 2015.7.1 - 2016.6.30 〉

수입 예산		
1. 회보발행	동창회비 (1200)	90,000
	full size 광고수입	18,000
	small size 광고수입	21,000
	website 광고수입	4,000
133,000		
2. 후원기금	본국 동창회 지원	11,000
	특별 후원금	30,000
	Brain Network 특별기금	5,000
	지부분담금	9,600
55,600		
3. 행사수입	평의원회 등록비	6,000
	골프대회후원	1,800
	평의원회 기부금	5,000
12,800		
총 수입		201,400

지출 예산		
1. 동창회보발행	인쇄비/배송	58,200
	편집 기사 취재	54,000
112,200		
2. 사무실운영비	웹관리/행정	18,000
	임대	2,600
	전문용역비	1,200
	회의비	3,600
	사무/소프트웨어	3,000
	우편/통신/인쇄	3,000
	은행수수료	600
32,000		
3. 행사경비 및 지원금	여행비/홍보비	8,400
	본국동창회분담금	11,000
	자선사업	3,600
	골프대회/평의원	34,200
57,200		
총 지출		201,400

‘한국학 연구소 설립안’에 대한 찬반 토론

제24차 평의원회의 (2015.6.20)에서는 안건 토의로 미주동창회 산하 한국학 연구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오인환 회장은 제23차 전국평의원회 (2014.6.28)에서의 한국학 지원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근거하여 연구소 설립을 매듭짓자는 제안을 했다. ‘현재 Thinktank는 전 세계에 6천 800여 곳, 미국에 1천 828곳이 있으며 워싱턴 DC에만도 395개소가 있다. 지난해 Brain Network Symposium에서 문유미 교수가 밝혔듯 우리 한국의 독립에 관한 역사가 일본이나 중국의 변방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자가 많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한 곳도 없어 서울대 동창회 산하에 한국학 연구기관을 만들면 좋겠다는 평의원회의 작년도 결정에 따라 Big Project를 시작했고 창립멤버를 모집하고 있었다. 비용은 우선 \$10 million 정도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 회장이 제안 설명을 했다. 오 회장의 제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제안자 측의 설명이 잇달았다.

토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동문들에게 전한다.

찬성: 이번 Brain Network Symposium Chair로 오신 이채진 교수, 강사로 오신 하용출 교수, 문유미 교수 등이 연구소 설립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오인환 회장이 Fundraising 등에 대해 보충설명하고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를 대비한 회칙 조직도와 조직의 인선작업까지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학 연구소를 미주 동창회장 아래 두며 연구소장 밑에 집행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연구위원회의 3개 분과로 나누어 조직한다는 것이다.

오인환 회장은 “한국학 연구소 설립에 관한 framework를 구성해 하용출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문유미 교수를 연구담당 부회장으로 하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인선작업까지 설명했다. 또한 “지난 해 평의원 회의에서 이같은 연구소 설립에 미주 동창회가 지원키로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용출 교수와 이채진 교수는 오인환 회장의 요청으로 오전에 이어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통해 한국학 연구소 설립의 중요성을 반복했다.

반대: 이에 대해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고일석 동문은 “현재 미주 동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동창회 재정자립으로 미주 동창회 하나만도 벅찬 데 다른 조직을 위해 또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동창회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부분 이런 연구가 많아 미주 동창회 차원

이 아니라 한국에서 지원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찬성: 이에 대해 오인환 회장은 “창립멤버 100명으로 시작한다면 미주 동창회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윤상래 전 회장은 분야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건물을 구입여부와 위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찬성: 이에 대해 오 회장은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건물은 필요하며 위치는 워싱턴 DC쪽이 가장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반대: 이에 대해 윤 전 회장은 “Fundraising으로 10 million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을 표시하며 “미주 동창회 사무실도 없는 형편에 연구소 건물 구입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찬성: 오인환 회장은 “서울의 총동창회에서든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미주 동창회 차원이 아니라 한국에서 Fundraising으로 10 million은 충분히 가능할 뿐더러 이 건물을 마련하면 미주 동창회 사무실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 희망 project로 부수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뉴잉글랜드의 고일석 동문은 “‘한국학연구소’라는 데 대해 거부반응을 가진 동문들이 많다”며 “한국의 역사·문화·인문학에 한정돼 있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부르크스 연구소처럼 전략연구소 같은 연구소는 서울대 안에도 국제연구소가 있어 통합하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틀랜드의 김명자 동문은 “아이디어는 좋으나 기금모금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미주 의과대학 동창회가 있고 각 지역 동창회는 물론 단과대학별 모임들이 따로 따로 있어 별도의 재정을 위해 기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기금을 모금하면 동문들의 부담이 더욱 커져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카고 동창회의 김용주 회장도 “시카고의 경우 동창회와 별개인 ‘세종문화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동창회에는 전혀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있어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미주 동창회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 오인환 회장은 “평칭은 재논의할 수 있고 Fundraising은 1인당 1천 달러 이상씩을 한 개 좌로 하고 있으며 미주 동창회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모금 운동에 치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모금운동에 더 힘을 들여 미주 동창회

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카고 동창회의 조봉완 명예교수는 “한국학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뒤 “‘서울대’라는 이름을 붙이면 관계된 사람에게만 편중돼 너무 견제될 우려도 있어 비동문이라도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오 회장은 “지금은 동문 내에서 조직하지만 앞으로 체계가 잡히면 문호를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조직을 organization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동문 내로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대: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윤상래 전 회장은 “이같은 기구에 대한 결정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개의를 제의했다.

남가주 동창회의 박혜옥 회장도 “이런 sub 사업의 재정에 쓰려면 미주 동창회 재정에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찬성: 오인환 회장은 “100명의 창립멤버 중 미주에서 50명, 한국에서 50명으로 시작하면 미주 동창회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며 지난 해 동의한 것을 다시 반대하면 또 다시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의의를 제기했다.

의견: 이에 캘리포니아의 김은중 제11대 회장은 “한국학 연구소 지원이라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나 문제는 이것을 과연 미주 동창회에서 지원할 문제냐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의견을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50명, 50명이라는 것은 주머니 돈이 썩지돈일 뿐이며 미주 동문들이 1인당 1천 달러씩을 지원한다면 미주 동창회 지원은 그만큼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난 해 이 문제에 대해 동문들이 동의했다고 하나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시기까지 결의한 것은 아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가능성 여부와 비용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내년에 더 개선된 안을 내 놓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부회장들이 지부에 돌아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 후에 결정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내년 평의원 회의 참석하기 전 개선된 제안안을 평의원들에게 미리 알려 주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는 등, 찬반 의견이 많아지자 결국 1.내년으로 연기하자는 안건과 2. 오늘 결의하자는 두 가지 안건으로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그 결과 평의원 총 53명 중 27명이 ‘1번, 내년으로 연기하지’는 쪽에 손을 들어 이 문제는 일단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국학 연구소를 미주총동창회 산하에 설립해 발전시키자는 제안에 대해 동문님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8월 31일까지 news@snuaa.org 로 보내 주세요.

원/고/모/집/합/니/다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쓰는 분도 보람있고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원합니다. 장르는 시, 수필, 평론, 풍토 등의 창작품, 미술, 음악, 영화, 공연예술, 독서, 여행, 역사, 철학, 종교 등 다양합니다.

건강, 의/약학/간호학, 아동, 노인, 가정, 은퇴재정, 세무, 법률 등의 상담질문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의 답변이나 칼럼도 실겠습니다. 가능한 한 글자수 2500자, 또는 단어수 700자 내로 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경우 조금 더 길어도 됩니다. 이 경우 회지 지면 형편에 따라 다음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news@snuaa.org 워드나 한글로 쓰시고 첨부파일로 보내주세요. <편집위원회>

모교 소식 SNU NOW

우연히 만난 한국음악에 빠진 지 벌써 18년이다. 조금은 낯선 인류음악학을 연구하는 푸른 눈의 힐러리 바네사 핀첨 성 국악과 교수를 만났다.

인류학과 국악의 만남

음악을 전공했지만 너무 경쟁적인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아 음악이 싫어지기까지 했던 그녀였지만 결국 음악과 인류학을 연계한 프로그램인 인류음악학(ethnomusicology)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 국악과의 인연은 한국 민속학을 연구한 교수님의 권유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튜브가 없던 시절, 국악 CD 3개를 구입해서 들은 것이 국악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녀는 CD에서 소리를 들자마자 매우 놀랐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소리가 살아있으면서 소박했어요. 일본과 중국의 음악은 접해봤지만 한국음악은 처음이었어요.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신기했죠." 이렇게 호기심에 덜컥 결정한 국악의 길을 18년째 걷고 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

1999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한국에 수차례 방문하고 머무르며 한국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다방을 기억하는 그녀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하숙집에서 버너에 인스턴트 커피를 끓이던 시절을 회상했다. 어딜 가나 카페가 넘치는 오늘날, 그녀는 놀라움과 걱정을 함께 표시한다. "정말 비교할 수 없게 달라졌죠. 문화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정체성은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세계의 어느 대도시를 가나 스타일, 음식, 체형까지 비슷해요. 듣는 음악도 비슷하죠.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가고 있지만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국악을 보다

그녀는 국악과 안에서도 국악이론 교수직을 맡고 있다. "저는 국악을 한지 18년 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에도 국악을 전공으로 하지 않았습니. 원래 국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국악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연구년을 가지며 집필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는 교육, 작곡, 그리고 국악의 최근 트렌드의 세 분야로 나누어 지난 20년 동안 국악은 어떻게 변화하였고 21세기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진도 무형문화재에 대해 연구를 하며 현장 조사를 수행 중이다. 시집살이 노래 등, 여성 민요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마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국악과 최초의 외국인 교수, 힐러리 핀첨 성



미국에서 한국으로

UC Berkeley에서 박사 후 University of San Francisco에서 강의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그녀는 서울대 국악과에서 외국인 교수를 구한다는 동료의 이메일을 보고 지원을 해 2009년 서울대 국악과 교수로 서울에 정착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세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6개월 정

도는 고생스러웠지만 아이들이 점점 친구를 사귀고 한국어 실력이 늘어가며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다고 한다. 그것이 벌써 6년 전의 일, 요새는 영어를 더 못한다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에 연구자가 아닌 어머니의 면모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우리말을 배울 때인 2000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핀첨은 그의 어릴 적 성이고, 뒤에 붙은 성은 남편 성씨다.

세계 속의 한국음악

그녀는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출판물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했다. 많은 연구를 영어로 발표하고 출간한다는 그녀는 한국음악에 대해 영어로 연구를 하는 것이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악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국내외의 관심 있는 학생들이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국음악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인류음악학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음악이 더욱 글로벌하게 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다.

내 인생의 나침반

Sound and Sentiment: Birds, Weeping, Poetics and Song in Kaluli Expression by Steven Feld
민족음악학을 전공하게 한 책이에요. 저자가 파푸아뉴기니에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환경과 소리, 사람이 연결된다는 아이디어로 써진 책이죠. 사람이 죽으면 새로 환생을 하기 때문에 새소리는 선조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예요. 새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곡을 만들죠. 이러한 음악에 대해 이론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해금

국악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매우 놀랐어요. 소리가 소박하면서도 살아있었죠. 여러 악기가 있지만 제가 배운 악기는 해금이었어요. 해금은 제가 생각하는 국악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대사람들>

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다. "서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모여서 마음 맞으면 함께 책도 읽고 시 낭송도 해요. 수업을 갈지 듣지 않아 서로 모르던 제자들도 여기서 금세 친해져 밤새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이 공간의 의미는 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하기 전 서원을 둘러보며 숲 고를 여유를 선사한 전영애 교수의 배려. 여백서원의 존재 이유를 몸소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너그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의 수필집 <인생을 배우다>의 한 구절을 떠올려본다. '세상이 무법천지 같아 살아가기 막막하고, 무슨 수단 쓰지 않고는 못 살 듯하지만, 살아보니 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살아진다.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며 살면, 조금 더 잘 살아진다. 쓸데없이 계산하느라, 남들과 비교하느라 힘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제법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기도 하다. 내가 거처온 시간이, 내가 만난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했다.'*** <출처:서울대사람들>

▼ 전영애 교수



전영애 교수 '공존의 공간을 짓다'

학자는 우리 사회가 자꾸만 무언가 상실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백서원(如白書院)은 그렇게 탄생했다.

모두의 이야기가 있는 곳

서울에서 1시간 30분 남짓. 전영애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작년에 지은 여백서원은 경기도 여주에 자리한다. 서원에 들어서면 요즘엔 쉽게 볼 수 없는 기와집과 그 뒤의 넓은 뜰이 눈에 띈다. 공금한 것이 많은 서울 방문객들은 도착하자마자 질문을 쏟아냈다. 전 교수는 대답 대신 산책을 권했다. "작은 밭이 하나 있는데, 들어오실 때 보셨나요? 우전(友田)이에요. 친구들 밭이죠. 오시는 분은 마음에 드는 허브를 따와 서원 안에서 차로 마셔요." 우리는 1,200평 부지의 넓은 땅을 느리게 걸었다. "이건 괴테송이구요, 저건 시(詩)송, 저기 있는 건 어머니를 생각하며 심은 모(母)송, 여기 가지 많은 건 후학송이예요. 아, 저기 나무는 아침의 지혜이고요. 독일 고전주의 재단에서 오신 분이 이를 지었죠." 전 교수는 바로 전날에도 1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렇게나 많은 나무에 모두 이름을 붙였다.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름 짓기도 해요." 나무를 정해 이름 지어도 된다는 말에 다른 사람 지어준 이름이 어찌나 했다. "나무가 많아서 관촬고, 중복 때도 큰일 날 것 없습니." 소유하고자 짓는 이름이 아니었다.

뒤뜰에서부터 서원을 크게 둘러보다 보면 수많은 시와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제자가 가져온 석류나무를 위해 만든 온실에서부터 독일에서 씨앗을 구해와 심은 낭만주의를 상징하는 푸른 꽃밭, 여백서원을 지을 때 도움을 건넨 분들의 사연이 깃든 석물들. 이곳에 사연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기본이 상실된 시대, 나와 나를 연결하다

괴테 연구자로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전영애 교수. 뒤늦게 시작한 연구였지만 그녀는 2011년 괴테 연구자들이 최고의 영예로 여기는 '괴테금메달'을 수상했다. 도무지 계산할 줄을 모르고, 몸 아픈 것도 몰라 갑자기 쓰러지기도 한다는 전 교수의 우직함이 그러한 학문적 성취를 만들었을 것이다. 여백서원도 그것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넓고 좋은 땅을 어떻게 혼자서만 쓰겠어요." 근처 마을에 폐농가를 집필실로 두고 오갔던 전 교수는 그곳이 너무 좋아 덜컥 서원 부지를 샀다. "이해라는 평범한 단어가 절실해진 시대예요. 남의 입장에 서 봐야 같이 갈 수 있는데, 혼자서 입장만 있죠. 그러면 끝없이 불행해져요."

함께 살아가는 것, 그녀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 상실되어 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여백서원이 그러한 상실을 조금이나마 채우길 바랐다. "어머니는 콩이 한 개라도 반쪽씩 나누라고 하셨어요. 끼니가 어려워도 거지에게 쌀을 나누어주던 분이시죠." 가슴 깊이 그리움으로 간직한 어머니를 떠올리며 전영애 교수는 공존을 위한 배려와 존중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 그러한 인식 속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뒤따라야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함께 읽고 나누며 공존을 배우다

공존하지 못하는 사회, 문학이 치유할 수 있을까? "모든 인생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문학은 허구를 통해 진실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요. 치유까지는 아니지만, 문학을 통해 다른 삶을 경험하면서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서울대학교 명강의로 꼽히는 '독일 명작의 이해'에서 전영애 교수가 학생들에게 <파우스트>를 고집해 읽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공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책에서 삶의 어떤 실용적인 지혜를 얻진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가 60여 년에 걸쳐 집필한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백서원의 매월 마지막 토요일

워싱턴 D.C. 동창회 - Lake Accitink Park 자유회

워싱턴 DC 동창회(회장 장경태·사대 75)가 지난 6월 13일(토) Springfield의 Accotink Park에서 자유회를 가졌다.

이 날 장경태 회장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길을 찾아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눠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음식을 맛갈스럽게 준비해주신 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야외에 시원한 바람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모처럼 모여 모교 이야기와 애상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스러운 시간을 갖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공원 한바퀴를 돌면서 간단한 퀴즈도 풀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가져 보고자 했으나, 시간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e-mail초청 363명, 우편엽서 333 통을 보내드렸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오랫만에 만난 동문들은 서로 정담을 나누며 식사를 마친 뒤 호수를 끼고 설치돼 있는 공원 길을 한 바퀴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 사진 왼쪽부터 뒷줄: 이관후(공대 87), 오재환(사대 85), 정세근(자연 82), 용희선(음대 86), 장경태(사대 75), 이우진(농대 86), 류홍철(자연대 74), 정평희(공대 71) 동문 / 앞줄: 한정희(미대 81), 정원자(농대 62) 워싱턴 DC 농생대 동창회장, 변만식(사대 49), 오인환(문리 63), 최준호(공대 60), 이윤주(상대 63) 동문, 이윤주 동문 부인



휴스턴 동창회 - 김태훈 동문 초대 Crawfish Boil 행사



2015 김태훈 동문 초대 Crawfish Boil 행사, SNU Houston

서울대 동창회 휴스턴 지부는 2015년 김태훈 동문 초대 Crawfish Boil 행사를 지난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Orange, TX에 위치한 Claiborne West Park에서 가졌습니다.

벌써 세번째로 치루어진 올해 행사에는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60명 이상의 휴스턴 서울대 동창회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12시부터 4시반까지는 공원에서 동문 소개 후에 김태훈 동문께서 직접 준비해주신 Crawfish와 감자 옥수수를 양껏 먹고 빨대로 양파링 전담하기와 젓가락으로 강냉이 나르기 그리고 속담 맞추기 등

의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친목을 나누고 4시간 경에 헤어졌습니다. 올해에는 회장 최인섭동문께서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를 준비해 주셔서 모든 참가자들이 입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직접 공원으로 오거나, 휴스턴에서 미니밴으로 모여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휴스턴에서 미니밴으로 떠난 참가자들은 9시반에 휴스턴에 모여, 10시 10분 휴스턴 출발, 12시경 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금년 회장 최인섭 동문께서 미니밴을 제공 운전까지 해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재미한국화회가 주최하는 한얼전(Corean Spiritual Art Exhibition)이 8월 15-16일 양일간에 걸쳐 역사 깊은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특별실에서 개최된다.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한얼전' 미술전시회 개최 8월 15-16일 양일간에 걸쳐 ...



김세경 (미대 62) 재미한국화회 회장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로서 조국과 더불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독립을 선포한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우리도 우리의 해방과 독립됨을 되새기는 뜻 깊은 기회로 삼아 우리 몸과 마음에 내재한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많은 인류와 함께 즐기고 표현하며 발굴하고자 합니다. 평화, 평등, 사랑, 용서, 배움, 아량, 관용,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 속의 갈등과 이민의 어려움을 인류애로 해소하는 화합의 기회로 꽃 피웁시다. 참가하시는 오랜 기량과 경력을 갖춘 분들이나, 새싹으로 피어 오르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청소년, 소녀 화가들뿐 아니라 관람객 모두 하나의 용광로로 타오르며 새로 태어나는 화회의 축제를 즐기시다."*** (문의: hangukhwa@gmail.com, 267-471-1737)

< 테너 전희근 독창회 >



전희근(의대54) 동문의 독창회가 7월 19일 오후 6시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에서 열린다.

1990년 차이코프스키 콩쿨 성악 부문에서 우승한 바리톤 최현수 교수가 우정출연하며 피아노 반주는 윤시내씨가 맡는다.***

L.A. 동창회 - 로렌스 한 회장 취임식 / 한미번역문학가 협회 결성 / 이애주 공연



L.A. 한인상공회의소 제 39회 J. Lawrence Han 회장 취임식

L.A. 한인상공회의소 제 39회 J. Lawrence Han 회장 취임식이 6-25-2015 보나벤처 호텔에서 주류사회 정·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로렌스 한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1972년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창립되어 43년간 지속성을 유지하며 정치, 문화, 사회의 전문분야에 눈부신 발전과 커뮤니티

니티 지도 단체로서의 위상 확립, 외부적인 목표로는 L.A. 시와 Chamber of Commerce 또한 타커뮤니티와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에 집중하여 교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겠으며, 내부적인 목표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Business Networking의 지속적인 개발과 급변하는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당면하는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그의 의지를 밝혔다.

축사에는 전임 전석호 회장 이임사, 에릭 가세티 LA시장, 김현명 총영사,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 Gary Toebben L.A. 상공회의소 회장, Bob Huff 거주 29지구 상원의원, 미셸 박 스틸 OC 2지구 수퍼바이저, 영 김 거주 65지구 하원의원, 데이비드 류 LA 시 4지구 시의원, Kebin Kim 행정, 등의 상공회의소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자들의 모습이 진지하였고 한인사회와 미주 사

회의 연결이 잘됨을 보는데 했다. 김기형(상대 75) 남가주 총동창회 전 재무국장이 서울대 대학원 경영대 최고 경영자 과정 출신인 로렌스 한 회장과 친분이 깊어 잘 아는 서울대 동문 10여분 정도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김병연(공대 68) 남가주 총동창회 차기 회장은 홍선애(미대 62)의 작품 그림을 서울대 동문들과 함께 축하 증정을 하였다.

6시부터 한 시간 동안의 리셉션에서 축하사진을 찍는 축하객들의 모습들이 활발한 앞날의 발전적인 모습을 예감케 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시작한 본 행사는 9명의 VIP 축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저녁 식사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 축하, 역대회장 소개, 내빈소개, 협찬사소개, 축하공연 등으로 많은 축하 화환과 함께 성황을 이루었다. *** <글, 사진: 백옥자 조직국장(음대 71)>

LA를 중심으로 서울대 동문들을 포함한 미국 내에 있는 문인들이 영문 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6월 20일에 (Korean-American Literary Translator Association: 한미번역문학가협회)를 결성했다.

한국 문학을 미 주류사회에 심도있게 소개하고, 미국 문학을 한국 사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자는 것이 이 협회의 목적이다. Long Beach, CA에서 정신과 개업을 하고 있는 이원택(미대 65) 동문이 회장을, LA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영(사대 69, 영문과) 동문이 사무국장을 맡아 새롭게 창립된 단체로, 최용완(공대 건축 57) 동문 등이 후원하고 있다. 이원택 회장은 현재 의대 미주동창회보 (시계탑)의 편집장으로, 김 사무국장은 관악세대 온라인 신문 <아크로 폴리스 타임스>에, 최동문은 본보의 논설위원으로 서울대 동창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원택 회장은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할 만큼 창작보다 더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 시작해야 하는데 우선 1세 문인들이 시작해서 1.5세와 2세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월례 Seminar 및 일 년에 두 번 Symposium을 개최하고, 연간으로 협회지를 발간하며 매년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우수번역상을 수상하는 일 등을 계획하고 있다. 첫번째 사업으로 8월15일 오후 1-5시에 LA Wood Blvd



한미번역 문학가 협회 결성

에 위치한 작가의 집(Writer's House)에서 "Essence of Literary Translation"이라는 토크로 심포지엄을 갖는다. 자세한 문의는 kaltura@gmail.com, 1-562-743-1436 또는 1-562-961-0155 으로 해주길 바란다.***



춤의 원형 보여준 춤꾼, 이애주의 '열연'

이애주는 춤꾼이며 이야기꾼이었다. 아니 무당이며 광대가 된 것도 같았다.

6월 19일 LA한국문화원(원장 김영산)과 미주한국무용협회(회장 김용화) 공동주최로 아리랑 무대에 선 그는 이야기하고, 소리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자기 속에 쌓인 예술혼의 정수를 거침없이 쏟아내어 관객과 소통했다.

이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혼으로 느낀 것은 이애주는 빼어난 춤꾼을 넘어서 철학자요 사상가이며 민족 예술가라는 사실이었다. "인문학으로 풀어나는 춤꾼"이라는 이날 공연의 타이틀이 좀 거창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큰 잘못이었다.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흰 무명옷을 입고 나온 그는 탁월한 이야기 솜씨로 관객을 압도하며 우리 춤의 근원에 대해, 춤 속에 담겨 있는 흥이인간의 정신과 의미에 대해 강연했다. 춤을 추러 온 것인지만, 민족철학 강의를 하러 온 것인지만이 아닐 정도였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이야기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5명의 춤꾼으로 거

슬러 올라가더니 환웅과 단군에까지 이르렀고, 그때로부터 한민족에게 전해 왔다는 오렝 소리춤 '영가무도'를 즉석에서 시연했으며, '천부경'(단군 경전)의 전문 81자를 풀어 암송하기도 했다. 그것은 모자라 관객을 죄다 일으켜 세워서는 절하기를 시키기도 하고, "오장육부에서 끌어올린 소리를 내라"며 오렝소리(음·아·어·이·우)를 시키기도 하고, 박수까지 치라고 흥을 돋우며 사람들을 들었다 놓았다, 열연을 펼쳤다. 관람석이 모자라 계단과 아리랑 입구까지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은 무대 위까지 올라와야 이 특별한 춤만 한마당에 넉을 놓은 모습이었다.

그럼 춤은 어땠는가.

춤사위가 달랐고 손과 발의 놀림이 달랐다. 이애주 교수뿐 아니라 함께 공연한 제자 3명(주연희 김연정 김서운)은 보통 내공이 쌓인 춤꾼들이 아니었다. 모두 대학 교수들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이수자와 전수자인 이들은 우아하고 절제된 우리 춤의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예의 춤'과 '본살풀이' '태평무'와 '태평

춤', 그리고 '승무'로 이어진 이날 공연에서 이 교수는 우리 춤의 정신과 모든 움직임이 들어 있다는 입춤 형식의 살풀이 기본 춤인 '본살풀이'와 LA에서 처음 발표한다는 태평무의 근원이 되는 '태평춤'을 독무로 관객을 감격시켰다. 이어 제자들과 함께 춤 '승무'는 전통춤의 백미로 꼽는 이 춤의 진수를 보여준 화려하고 신비하며 감동적인 공연이었다.

인간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의 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다. 실상 한국의 인간문화재들은 고령에 문화재 지정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 추는 모습을 보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다. 승무(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인간문화재이며, 살풀이춤(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전수자인 이애주 교수는 67세라는 나이를 느낄 수 없는 젊은 기와 혼과 열정으로 무대를 사로잡았으며, 공연을 끝낸 후에도 관객들과 질의응답을 가지며 미주한인들의 뜨거운 관심에 호응했다.

이런 춤 공연은 생전 처음이고, 앞으로도 다시 있을 것 같지 않다.*** <출처: 미주한국일보, 정숙희 기자>

시카고 동창회 - Busse Woods Grove #4 야유회 / 김(유)부강 개인전



이차화 사진 작가 (이건정 동문 부인)가 찍은 그룹사진

시카고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 김용주)는 6월 27일 Elk Grove Village 에 있는 Busse Woods Grove #4 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2부 여휴시간은 공대 장영수 부회장의 재치있는 사회로 모두들 잡것 웃을 수 있었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동창회에서 제공한 푸짐한 음식을 들며 즐거운 대화와 여흥으로 완벽한 피크닉 날씨에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 ***

약 130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모였고, 특히 젊은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 Club 회원들이 어린 자녀들과 같이 참가해, 불고기 barbecue 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상대 김호병, 의대 김규호 동문에게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주는 감사패와 우수 문학상패 수여식이 있었다.

김(유)부강(미대 61) 동문의 29번째 개인전이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6/27-7/14 까지 열린다. <연락: bukangkim@yahoo.com, 513-300-3173>

뉴욕 동창회 - 이준행 회장배 장학기금 모금 춘계골프대회 / 뉴욕지역 동창회 제36대, 37대 회장단 인수인계식 개최



지난 6월 11일 '이준행 회장배 장학기금 모금 춘계골프대회'가 50여명의 동문들과 게스트들이 참가한 가운데 뉴저지 Emerson Golf Club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동문들은 드넓은 푸른 초원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뜻깊은 행사의 취지에 동참함으로써 대회를 빛나게 했다. 이날 행사에서 2만5천 불의 장학기금이 새로이 마련되어 이전 20만 불의 새 목표를 바라볼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회를 마친 후, 클럽 레스토랑에서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 시상식과 잘 준비된 디너 시간이 있었다. 이준행 골든 클럽 회장은 40인치 스마트 TV, 광선설 동문은 다이어 반지를 경품으로 기부하였고, 이전구 전 미주동창회장은 골프공을 경품으로 기증했다. 뉴욕지역 동창회는 지난 2008년 이래 매년 봄, 춘계골프대회를 장학기금모금 행사로 하여 기금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며, 모여진 기금의 일부를 매년 연말송년회 때, 미동부에 유학 중인 선발전 동문 후학들에게 지급해오고 있다.***

메달리스트는 79타를 기록한 김광수(공대 72) 동문이 차지하였고, 남자 1등 김문경(약대 61), 남자 2등 한경수(문리 57), 여자 1등 Mrs. 조달훈, 여자 2등 고애자(사대 58), 장타상엔 신웅남(농대 70), 근접상은 정도현(공대 57), 팀 상은 민준기(공



제36대, 37대 회장단 인수인계식 개최

뉴욕지역 동창회 제36대, 37대 회장단 인수인계식이 지난 6월 30일 후리스 금강산 한식당에서 개최되었다. 광승용(의대 65) 전임회장이 민준기(공대 59) 신임회장에게 교기를 전달하며 동창회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참석한 이준행 골든 클럽 회장 겸 전임 회장단, 36대 임원진 등은 지난 일년을 회고하며 36대 회장단의 봉사에 대한 감사와 새 집행부가 앞으로 더 잘 동창회를 이끌어 가도록 격려와 후원을 다짐했다.

제37대 집행부는 오는 7월이나 8월 초에 '2015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 뉴잉글랜드 지부, 장학금 수여식 겸한 총회 가져...



53학년부터 90년대 학번까지 함께한 단체사진

뉴잉글랜드 지부는 6월 6일(토) 애크튼 클럽하우스에서 전기총회를 가졌다. 화창한 날씨를 맞아 53학년부터 90년대 학번까지 40여명의 동문

들 및 가족들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회기 사업 및 재무 보고, 회칙 수정, 차기 회장 인준이 이루어졌고, NE 한인커뮤니티 전체대상으로 선발한 2015년도 서울대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김도연 (NEC),

이승미(Brown Univ), 김수완(Dedham High 졸업, Berklee 음대 진학 예정) 학생들에게 각각 \$1,000이 수여됐다. (장학위원장: 윤희경 (문 62입)), 2년간 연임해 온 장수인 회장(음 76입)이 이임하고 이

의인 동문(공 68입)이 신입회장으로 선출, 인준되었다.

특별히 그 동안 동창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윤상래(수 62입), 윤희경, 김병국(공 71입) 등 세 명의 전임회장과 오랜 기간 봉사한 도삼주(공 84입), 이재형(공 91입) 임원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되어 동문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주최측이 마련한 푸짐한 식사 후에는 새로이 참석한 동문 소개가 있었고 바로 이어진 오락시간에는 역사 퀴즈, dart game 등의 다양한 게임과 상품으로 웃음 꽃피는 화기애애한 시간을 나누기도 했다.

동창회 정보 및 문의 사항은 동창회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snuaaen/> 를 참조하면 된다.*** (작성: 이재형 기획 (공 91입))

서울대생 '실리콘밸리 쇼크' - "실험실서만 보던 레이저 · 3D프린터... 미국 창업 대학생은 맘껏 쓰네요"



지난 10일 UC버클리의 창업지원 기관인 '셋트리스 인벤션 랩'을 방문한 서울대생들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범(오른쪽)을 둘러봤다. 버클리는 '오염주 기차'



IT 셋벌 쏟아내는 창업 인프라에 탄성 "차별 · 독불장군 · 평생직장 · 정부지원 없는 실리콘밸리에서 진짜 기업이 정신 배웠다"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UC 버클리의 창업기관 '셋트리스 인벤션 랩'에 들어선 서울대생들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이곳 학생들이 레이저 절단기, 3D 프린터 등 각종 장비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지켜보던 한 학생은 "서울대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지만 특정 학과 수업에만 쓰이고, 상당수 학생은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

실리콘밸리 내 기업과 대학을 둘러본 서울대생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이 정신을 배웠다고 말한다. 벤처 생태계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 넣는 멘토링과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실감했다.

기업인들 "편한 길만 찾지 말라"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은 서울대생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와 직

접 부딪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지에서 벤처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윤필구 박베이 신캐피탈 대표는 "의식적으로 자기를 불편한 곳에 위치시켜야 성장할 수 있다"며 편한 길만 선택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김범섭 웰컴 부사장은 "연구원, 교수, 대기업 임원을 모두 경험해봤지만 창업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며 "미국에 휴일이 왜 이렇게 많냐고 불평할 정도로 일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김부사장은 2000년 KAIST 교수직을 던지고 나와 미국에서 휴대폰 칩 개발회사를 창업했다. 2006년엔 이 회사를 웰컴에 560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547억원)에 매각했다.

이곳 학생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스탠퍼드대 창업동아리인 'BASES' 회장은 "실패에 대한 부담과 리스크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며 "한국과 실리콘밸리의 근본적인 차이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엔 △차별과 편견 △독불장군 △평생 직장 △정부 지원 등 네 가지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박태영 씨(서울대 전기

정보공학부 4학년)는 "정부 지원없이 세계적인 기업이 잇따라 나오는 실리콘밸리를 돌아보면서 '제로 투 원(zero to one ·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의 원동력은 결국 기업가라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멘토링 · 네트워크 '성공 DNA'

서울대생들은 공대 출신들의 위상과 역할에 새삼 놀랐다. 공대 졸업생들은 실리콘밸리에선 최고 인재로 대우받고 있었다. 정보기술(IT)대기업 엔지니어의 초봉이 10만달러(약 1억 1000만원)에 달할 정도다. 서울대생들은 방문하는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나중에 사업에 성공하려면 곁에 있는 공대생들을 잘 모시라"는 조언을 들어야 했다.

창업은 꿈꾸는 이들을 무엇보다 매료시킨 점은 창업경험을 예비창업자에 전수하는 실리콘밸리의 멘토링 문화였다. 대부분 기업과 창업가들이 학생들을 스스럼없이 맞이하고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박태영 씨(서울대 전기

해 창업 노하우가 전수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었다.

벤처 투자 유치를 위한 문턱도 높지 않았다.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권도형씨는 "아무리 유명한 벤처캐피탈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 만나볼 수 있다"고 했다.

구자홍 LS 미래연 회장의 장남으로 이곳에서 벤처캐피탈 '포메이션8'을 경영하는 구분홍 대표는 "벤처 투자자가 스타트업을 먼저 찾아가 우리 돈을 써달라고 설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리콘밸리를 돌아본 서울대생들은 '우물 안 개구리'와 같았던 시야가 크게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최고 대학인 서울대의 창업환경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서울대의 학부생 진로조사 결과 창업을 1순위로 희망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남익현 서울대 경영대학장은 "기업가 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마음 놓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새너제이=한국경제 오현주 기자 ohj@hankyung.com>

김정현(경영학과, 벤처경영학과)
"이번 실리콘밸리 탐방을 통해 투자자도 만나보고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성공하고 성공적인 벤처 생태계에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 다양한 관점에서 배울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부 의존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보형(생명과학부, 벤처경영학과)
"아망을 품은 창업가들의 꿈의 스테이지인 실리콘밸리에서의 일주일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력적이었다. 비슷한 나이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도전해볼 수 있는 열정을 지닌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동시에 내 자신 속에 품어둔 기업가 정신을 다시 꺼낼 수 있게 되었던 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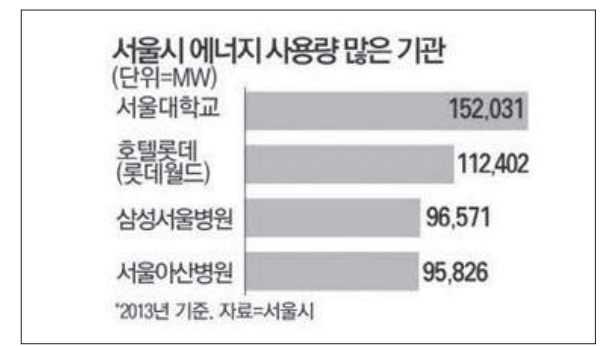
김희진(지리교육과, 벤처경영학과)
"이번 실리콘밸리 연수에서 느낀 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실리콘밸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창업자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에서 배운 도전적 자세는 앞으로 창업 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창훈(수학교육과, 벤처경영학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새로운 환경을 직접 느껴보게 하는 것만한 수업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창업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그 정신을 전파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entrepreneurship 이 아니겠냐는 말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진심으로 나에게 많은 자극을 준 뜻깊은 시간이었다"

전기먹는 하마 서울대의 실험 'IoT·전력저장 신기술 동원, 에너지 다이어트 프로젝트'

'전기 먹는 하마' 서울대가 민·관·학 공동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실험에 나선다.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마이크로 그리드'는 제주 가파도와 진도 가사도와 같은 외딴 섬에 설치된 적은 있으나 도심 지역에 시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캠퍼스를 대상으로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이 국내 최초로 융합 적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서울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사업으로 주관기업인 LS산전, 참여기업인 LG전자, IoT업체 등 22개 기관이 2020년까지 모두 1300억원을 투자해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IoT 기반 캠퍼스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이르면 이달 말 성낙인 서울대 총장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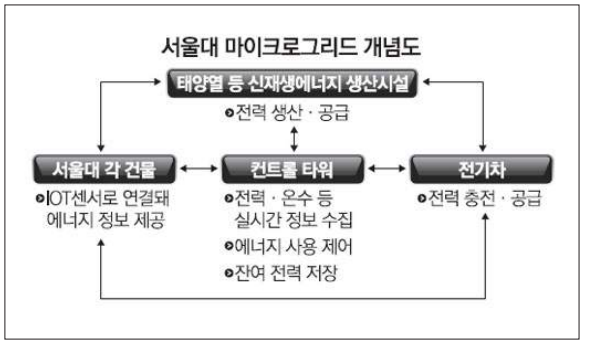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이식되는 마이크로 그리드는 매년 서울대 전기요금 20% 절감하고 IoT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개발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서울대는 2013년 기준 15만2031MW 전기를 사용해 180억원 규모 전기료를 내고 있다.

서울대는 우선 2018년까지 공대 건물 등 캠퍼스 일부 등에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해 관악캠퍼스 전 건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 핵심은 IoT 센서로 특정 건물의 전력은·습도 환기 보안 등 정보를 빅데이터 형태로 수집하는 것이다. 또 ESS 기술 상용화에도 나서 전력이 남으면 저장하고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도록 해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이진우 공대 학장은 "이 사업은 마이크로 그리드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 민·관·학 협력 프로젝트"라며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으로 서울대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악캠퍼스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에너지 분야 신규과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1차년도인 올해 정부출연금 30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20억원을 투입한다. 문승일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원은 "각 참여기관이 협업체 최고 형태의 캠퍼스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전력 소모로 '전기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에만



15만2031MW(전기요금 183억원)로 서울 시내에서 단일기관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공개한 '에너지소비비 성취율'(2013)을 보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 전력 소비 2위인 연세대(6만5007MW), 3위 고려대(6만2963MW)를 합친 것보다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송파구 롯데월드(11만2402MW)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에너지 소비 수준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은 높은 시장성으로 해외 선진국 간에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는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으로 연간 800만달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마이크로그리드 시장 규모는 올해 100억달러에서 2020년 200억달러로 팽창할 전망이다.

■ <용어 설명>
>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 :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를 소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한 것을 말한다. *** <매일경제·안갑성 기자>

국내뉴스 명과 암



한인 변호사 폴 최(최정열) 하버드대 총동창회장 선출

하버드대 총동창회(Harvard Alumni Association)를 한인이 이끌게 됐다. 16일자 학내신문인 Crimson 지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활동 중인 폴 최(한글이름 최정열, 51. 사진) 변호사가 전 세계 하버드대 졸업생을 대표하는 총회장으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학생시절 크림슨지의 편집자였으며, 시카고 지부 동창회장장과 법대 동문회에서의 활동을 거쳐 작년에 동창회 마케팅부 부회장으로 봉사한 최회장은 거대한 하버드대 동창회 네트워크를 관할하게 되었다. 그의 임기는 하버드

대 역사상 \$6.5 billion 이라는 최고의 기금 모금 캠페인이 추진 중인 가운데 시작되는데, 거대한 기금모금 추진에도 불구하고 최회장은 인터뷰에서, 기부자들에게 구애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는 말하기를, "그것이(기금 모금)이 나의 주된 중점사업이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이 모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유도할 때 기금모금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동창회가 모교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드류 파우스트 총장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3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최 회장은 1986년 학부 경제학과와 89년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쌓으면서 모교 발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들리 오스틴 로펌의 파트너인 그는 지난 2002년 경제 전문지 크레인스가 뽑은 '성공한 거대하 하버드대 동창회 네트워크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의 임기는 하버드

에이즈 백신 연구결과 조작한 아이오와주립대 전 한인교수 징역형



에이즈 백신 개발에 획기적 연구 성과를 낸 것으로 조작해 미국 당국으로부터 수백만불의 연구지원금을 받은 한인 교수가 4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고 미 언론들이 7월 2일자로 보도했다.

미국 법원은 한동표(57, Han, Dong-Pyoo) 전 아이오와 주립대(ISU) Bio-medical Sciences 교수에게 미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받은 연구기금 720만달러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2009-2013년까지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마이클 조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토끼를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시켜 황체가 생기는지를 실험했다. 토끼 혈액으로 만든 백신이 HIV 바이러스를 대항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의회계가 주목했고 미국립보건원이 거액의 기금을 제공했다. 나중에 하버드대 연구팀에 의해 토끼 혈액에 인간 혈액항체(antibody)를 첨가한 사실이 밝혀지자, 실수로 인간 혈액이 섞였으며 고의성은 없었음을 주장했으나 결국 美 연구관리당국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고 교수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3년 자격정지라는 제제가 가법다는 비판이 커졌고, 미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해 기소했다. 검찰은 "그의 행위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극이며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알고 있는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다른 연구자들에 대한 범죄이다. 박사 학위가 있는 학자라는 이유로,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법이 다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변호사, 조셉 해롤드는, "그는 이미 그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이미 미 분야에서 자격정지를 당했다. 만일 실형을 받게 되면 미국 시민인 아내와 두 아들과 생이별을 하고 한국으로 추방되어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니, 정상을 참작해 실형대신 집행유예를 원한다"고 했으나, 제임스 그리츠너 판사는 57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으며, 720만불을 미정부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편집자 주: 한동표 교수는 서울대 동문이 아닙니다.)***

건강칼럼 | 메르스에 관한 Facts와 단상



김정은 (의대 84 졸업)
뉴욕 감염내과 전문의

요즘 한국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는 MERS(공식 이름은 MERS-CoV)는 처음 2012년 9월 Saudi Arabia에서 처음 report 된 새로운 Human disease이다. 그동안 MERS를 일으키는 virus는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낙타와 박쥐와 같은 중동지방의 동물에 서식하며 이 virus가 변하여 사람에게로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2002-2003에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SARS와 같은 corona virus에 속하며, SARS나 종종 global pandemic을 일으키는 influenza와 같이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어 먼저 기침, 호흡장애, 고열,

등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virus이지만 폐 혈관과 맨 첫번째 방어단계의 세포에서부터 더 격렬한 증식을 일으키며 높은 량의 염증을 일으켜 Multiorgan failure와 같은 패혈증 증세를 더 심하게 보여 이들보다 높은 치사율을 보여온 무서운 virus로 알려져왔다. Influenza나 SARS는 전염력은 강해서 global issue가 되었지만 치사율(SARS-11%, Influenza-1%)은 비교적 낮았던 반면 MERS는 그동안 Saudi Arabia를 제외하면 중동지방을 비롯하여 약 10여개국에서만 보고되었고 한국과같은 major outbreak는 Saudi Arabia를 제외하고는 없었지만 약 40-50%의 높은 치사율을 보였고, SARS와는 달리 주로 노약자에게서 발병하여 높은 치사율도 대부분 다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지금도 중동 지방, 특히 Saudi Arabia에서는 이 질병이 완전히 멈추지 않아 6월 중순 현재로 지난 3주동안의 새로운 26 case를 합하여 1026 cases가 확인되었고 450명이 사망하였다 (44% 치사율). 그동안 미국에서는 단 2개의 case만이 2014년에 Indiana와 Florida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두 case는 Saudi Arabia 병원에서 일하고 돌아온 health care worker들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밝혀져 미국에서는 MERS가 더 이상 특별히 주목 받는 질환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신종 Flu와 Ebola로 인해서 한동안 떠들석 했지만 지금은 모두 차분하게 해결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땅이 넓어 지역별로 감염질환의 양상이 다르게 일어나는데 New York에서는 요사이 백일해(Pertusis)에 대한 주의를 내놓고 있는 정도이다.

미국은 CDC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와 Federal, State & Local department of health에서 긴밀한 정책하에 감염 질환을 통제하고 있다. CDC에서는 MERS에 대한 guideline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한, 그러나 증상이 없는 사람에 대한 지침부터 시작하여 appointment를 한 환자와 escort하는 사람과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과 모든 과정에 있어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환자가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이나 의사를 찾았을 때에는, 어디를 경유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history taking과 더불어 14일 이내에 watch list에 포함된 나라를 경유했을 때에는 contact and airborne isolation을 시키고 그동안 contact했던 사람들을 추적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잠복기로 알려진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MERS-CoV 진단 검사를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A. Fever AND pneumonia or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based on clinical or radiologic evidence) AND EITHER:
 - history of travel from countries in or near the Arabian Peninsula within 14 days before symptom onset, OR
 - close contact2 with a symptomatic traveler who developed fever and acute respiratory illness (not necessarily pneumonia) within 14 days after traveling from countries in or near the Arabian Peninsula1, OR
 - history of being in a healthcare facility (as a patient, worker, or visitor)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in 14 days before symptom onset, OR

- a member of a cluster of patients with severe acute respiratory illness (e.g., fever and pneumonia requiring hospitalization) of unknown etiology in which MERS-CoV is being evaluated, in consultation with state and local health departments, OR
- B. Fever AND symptoms of respiratory illness (not necessarily pneumonia: e.g., cough, shortness of breath) AND being in a healthcare facility (as a patient, worker, or visitor) within 14 days before symptom onset in a country or territory in or near the Arabian Peninsula in which recent healthcare-associated cases of MERS have been identified. OR
- C. Fever OR symptoms of respiratory illness (not necessarily pneumonia: e.g. cough, shortness of breath) AND close contact2 with a confirmed MERS case while the case was ill.

The above criteria serve as guidance for testing; however, patients should be evaluated and discussed with public health departments on a case-by-case basis if their clinical presentation or exposure history is equivocal (e.g., uncertain history of health care exposure).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지않아 이번 한국의 outbreak로 인하여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전세계 감염의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outbreak는 그동안의 보고서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먼저 그동안 MERS는 human to human 감염이 제한되어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왔다. 그것은 Ramadan 기간에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Mecca에 모이지만 global outbreak는 거의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사되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이 초기에 이 질병에 대하여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러나 그동안 중동에서도 대부분의 outbreak는 질병의 심한 양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에서 일어났고 health care worker들과 visitor들이 많이 감염 되었으므로 한국의 초기 대응 실패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사실 처음 접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초기에 잘 모르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Ebola의 경우, 초기에 이 질병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러명이 virus에 노출이 되었고 그 중에는 사망자까지 생긴 경우를 보았다. 다행히 Ebola는 MERS와는 달리 체액에 의해서 전염되는 것으로써 비교적 쉽게 제어를 할 수가 있었지만 미국도 한국과 같은 인구 과밀 국가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MERS에 대한 초기 대응을 한국보다 잘 할 수 있었을까에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분명 그 병이 의심되었거나 진단이 된 다음에는 한국보다는 더 잘 갖춰져 있는 의료환경으로 더 철저한 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선진국의 인프라를 갖출 수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MERS사태에 대해서는 WHO가 지적하고 있듯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poor infection control measures에 원인이 있다. 여러 단계에서의 다발적인 문제에 기인한, 그동안 의료한류를 외쳐오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구멍이 많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반적인 실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일이다.

한국은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결핵 다발성국으로 분류되어 왔다 (대만이나 대부분의 동유럽은 이미 제외된 지 오래되었다). 2013년 WHO 통계에 의하면 Mortality Rate 이 10만명당 일본 18, 중국 70,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 100-500, 미국 3 인데 한국은 100 에 가까운 숫자(97)를 보이고 있다. GDP가 어떻게 의료한류가 어떻게 하지만 지금도 미국 이민자 나라 중에서 결핵 다발성국에 들어가 있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이다. 한국은 여러 방면으로 불균형을 보이는 나라이지만 높은 교육 수준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 여러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사회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국가적 시스템과 지도력의 부재로 큰 어려움에 부딪치곤 한다. 언제나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그 수준을 아는 우리 미국이민세대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퀴즈, 100 점 맞을 수 있나요?

Do you think you could pass the Social Security quiz? Let’s try our understanding of SS with the following quiz and send your answers to us:

True or False?

1.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are based on my earnings history, so I’ll receive the same monthly benefit amount no matter when I start collecting.
2. If my spouse dies, I will continue to receive both my own benefit and my deceased spouse’s benefit.
3. I must be a U.S. citizen to collect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4. Under current Social Security law, full retirement age is 65.
5. I can continue working while collecting my full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 regardless of my age.
6. If I file for retirement benefits and have minor dependent children, they also may qualify for Social Security benefits.
7. As a divorced person, I can collect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based on my ex-spouse’s earnings history.
8. Once I start collecting Social Security, my benefit payments will never change.
9. Government workers may have their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reduced.
10. My spouse can qualify for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even if he or she has no individual earnings history.

퀴즈응모 ▶▶▶

동문칼럼 | 의사와의 대화 - ‘미처 보지 못한 것들’



박평일 (농대 69)

몇 주 전에 담당 의사인 닥터 네논을 찾아가 일 년 만에 정규 검진을 받았다. 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목사, 이발사 등 소위 끝에 '사' 가 붙은 직업인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좀처럼 바꾸지 않는 소심한 성격이다. 그런 내가 담당 의사만큼은 20년간의 인연을 정리하고 5년 전에 닥터 네논으로 바꾸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몇 주 전에 담당 의사인 닥터 네논을 찾아가 일 년 만에 정규 검진을 받았다. 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목사, 이발사 등 소위 끝에 '사' 가 붙은 직업인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좀처럼 바꾸지 않는 소심한 성격이다. 그런 내가 담당 의사만큼은 20년간의 인연을 정리하고 5년 전에 닥터 네논으로 바꾸게 되었다.

나는 협일이 정상수치를 약간 웃도는 것 외에는 별다른 건강상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검진을 받을 때마다 복용해야 할 약의 종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언제 부터인가 각종 비타민을 포함해서 15 여개가 이미 넘어갔다. 물론 나의 건강을 위한 처방이었지만 혹은 때로 갔다가 오히려 혹은 하나 더 붙이고 돌아오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씁쓸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내 건강에 과잉 관심을 보이는 아내, 그리고 그녀의 철저한 신임을 받고 있는 담당 의사의 명령(?)에 반기를 들 만큼 나는 간이 큰 남자가 못 된다.

암튼 매일 저녁 케틀이 약봉지와 물컵을 손에 들고 지켜보는 가운데 반강제로 입안에 알약들을 털어넣을 때마다 정말 죽을 맛이다. 몇년 전 인터넷에 미국인들 사랑을 일워 질병이 심장병이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숫자가 그보다 많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다. 그 기사를 무기로 케틀을 어렵게 설득해서 담당 의사를 노년층 상담 전문의사인 닥터 네논으로

결정받은 아닐 것이다. 닥터 네논은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행복했던 어린시절 추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듯 했다. 그의 유난히 따뜻하고 포근한 성품들이 고모와 고모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활규모를 줄이는 수 밖에 없지요. 저는 5년 후에 은퇴할 계획으로 몇 년 전부터 살림규모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와 나이가 비슷한데다가 인상도 따뜻하고 포근해 보여 마음에 들었다.

그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富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必要한 것이 얼마나 없느냐’가 결정한다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들어왔다.

내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지인들인 뉴욕 돌섬 이 목사, 그리고 버지니아 T선배의 경우만 보아도 그렇다. 두분은 다 빈 손으

로 은퇴를 했다. 그러면서도 전화를 모두 소유한 듯 하루하루 삶을 유작작하고 행복하게 일귀하고 있다. 한 분은 파킨슨 병, 다른 한 분은 뇌경색증을 앓고 계시면서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고모 장례식에 참석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내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옆에서 나를 지켜 보고 있던 한 고모 친구가 나를 껴안으며 나에게 건넸던 위로의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프레드릭,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네 고모 Claire에게는 오늘이 가장 기쁜 날일 것이다. 살아서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남편 Erick의 얼굴을 천국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날이니까 말이야. 그동안 Claire 와 Erick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직접 두 눈으로 얼마나 확인하고 싶었겠니? 오늘이 두분의 그 평생 소원이 성취되는 날이 아니겠어?”

“고모와 고모부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었나 보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고모 Claire와 고모부 Erick은 이 세상에 맹인인 맹인학교 OVEBROOK 에서 만나 몇년 전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했습니다. 고모부는 사회봉사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죽을 때까지 봉사 활동을 하시다 돌아가셨고, 고모는 피아노를 전공해서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연주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 습니다. 두 분 모두 노후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들의 직업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리 고 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시절 고모집에서 학교 방학 기간을 거의 보내곤 했습니다. 의사 아버지의 부탁도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택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생애에 그때처럼 행복했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모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포근

“당신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 해?” 하고 물었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헬렌 켈러가 말했었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고. 나는 오늘 닥터 네논 고모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어. 이 세상에서 미처 보지 못한 것, 볼 수 없었던 것들, 만질 수 없었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것이 사람이 아니겠어?***

★ **소셜시큐리티에 관한 퀴즈 응모** - 정답을 질문번호, T 또는 F 중 한 글자로 쓰고, 아래의 서식을 잘라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 news@snuaa.org 로 보내주세요. 100점 맞으신 분들 중 선착순 10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우편주소는: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이메일의 경우도 아래의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이름:		주소:	
단과대:		학번:	
Email:		전화:	
1:	2:	3:	4:
5:	6:	7:	8:
9:	10:		

독후감 | 두 남북전쟁 'Metaphysical Club' 을 읽고



민상익 (의대 60 졸업)

미국과 한국은 90년 사이에 남과 북이 서로 잔인하게 죽이고 죽어간 전쟁의 비극을 겪은 나라들이다. 그래서 미국은 4년 (1861~1865)만에 전쟁을 끝내고 5년만인 1870년 다시 한 나라가 되었다.

1865년 4월 8일 남쪽 Robert Lee장군이 북쪽의 Grant 장군을 만나 항복할 당시 Grant 장군은 남쪽 군사들의 배고픈 사정을 알고 식량을 공급했고 북쪽 군사들에게는 "이제 전쟁은 끝났다"며 승리를 축하하는 불꽃놀이들을 금지시켰다고 전해졌다. 서로 이해하는 마음씨를 느끼게 한다. 한국의 경우는 너무나 달랐다. 1952년 정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면서도 거의 1년 동안 서로 싸웠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협정 당시 UN군 사령관이었던 Mark Clark장군은 그의 저서 'From the Danube to the Yalu'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휴전 협정 서명이 지연되던 10일 동안 남쪽에서 1만 4천명의 한국군이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부상을 입었다. 이미 서명을 할 것인데 더 싸워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그리고도 더 많이 흘리게 했더니 우리 젊은이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했던 당국이 원망스럽다'

Clark장군은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정전협정을 방해하며 일방적으로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위협해 미국 정부와 UN군의 계획을 지연시켰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적었다. 겉으로 보이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다면 5천년 역사의 단일민족을 내세우는 한반도가 벌써 통일을 했고 100년도 안 된 여러 이민자들의 신흥국가 미국이 통일하기 어려웠을 것이나 실은 반대였다. 과연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고심하

던 중 'The Metaphysical Club'을 읽고 그 답을 소개하고자 한다.

'The Metaphysical Club' 2001년도에 출판된 Louis Menand에 의해 쓰여진 500페이지가 넘는 미국 남북 전쟁시대를 거친 여러 사상가들(Oliver Wendell Holmes, William James, Charles Peirce and James Dewey 등)의 전기들 방불케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독일도 아닌 신흥국 미국의 사상가들이었으며 불가지론(Agnosticism) 이

미국과 한국의 공히 동족상잔의 남북전쟁을 겪었으나 그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왜?

라는 신조어에 더 끌려 있었던 시대인지라 'The Metaphysical Club'이란 이름을 비정대거나 반항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지적도 이해가 된다.

1872년 Mass.주 Old Cambridge의 젊은 지성인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만나 토의를 했으며 주로 Charles Peirce나 William James의 서제에서 모였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미국이 민주사회를 내세우면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의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을 했다는 사실에 빠야픈 자성이 있었을 것이며 알 듯 모를 듯 한 metaphysics보다는 실리적 결과를 중시하는 행동철학으로서의 pragmatism 이 쓰드게 됐다고 본다.

Idea Holmes, James, Peirce, Dewey 등의 사상 바탕은 관용(tolerance)라는 idea에 있었음이 지적됐다. 관용이란 미국 이민역사의 정신이기도 하다. 영국 등 유럽의 종교적 독재성을 피해 종교적 관용성을 찾아 미국에 오게 된 것이다.

남북전쟁도 관용성이 발휘됐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와 우리만 옳기에 모든 기회를 독점하겠다는 생각에 관용이나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서로 평화적이거나 좋은 결과에 관심이 있는 pragmatism 이라면 관용의 바탕이 필수조건이다. 'Pragmatism'이란 원래 과학자 출신인 Peirce의 'How to make our idea clear?' 라는 essay에서 소개된 단어를 James 가 발전시켜 미국 철학으로 등장시켰다. James는 1842년 뉴욕 출신이고 1870년 Harvard, M.D를 거쳐 철학자가 되어 유럽사상(metaphysics)에 질린 철두철미 미국인으로 '결과' 'Cash Value'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Dewey는 특히 미국 교육철학에 기여했으며 교실 책보다 직업교육을 중시한 학자로 널리 알려졌다. 지식의 행동의 도구로 기여한다는 Instrumentalism을 주장했다. Scholastic culture는 속물근성(snobbishness)을 낳지만 직업을 통한 fellowship은 democracy를 길러준다는 그의 가르침은 두고두고 우리를 깨우친다. 'The Metaphysical Club'이 1872년에 시작할 무렵 Harvard대학도 신학 중심에서 과학 분야로 확대 발전케 됐다. 1869년 Harvard대 총장으로 온 Charles William Elliot은 화학자로서 MIT교수로 재직하다 왔으며 지대한 공로를 세웠고 한

때 James도 그의 제자였다. 19세기 미국 대학생이 9천명 이상 독일에서 공부했고 미국 Ph.D.학위 수여는 1861년부터 시작됐다는 기록이다. 미국이 남북전쟁 뒤 서부진출 사업, 대륙횡단 철도사업 등 산업국가 건설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현대 미국을 건설한 힘은 pragmatism에서 나왔다고 믿게 된다.

Ideology 미국은 pragmatism이라는 idea로 통일된 나라를 이룩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면 한국은 idea가 없는 ideology때문에 계속 분열되고 싸우기만 한다. 백성과 나라를 위한 선의적 idea는 건설적 내용이 되지만 기독교 세력만을 위한 악의적 idea는 ideology로 퇴화해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은 18세기 프랑스 사상가들(philosophers)에 의해 왕권과 교권이 잘못된 믿음으로 백성들을 세뇌시켜 온 위선을 통렬하게 비판해 왔다. 요컨대 일반 백성들은 어리석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왕권과 교권이 다스려야 한다는 위선적 술수가 용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ideology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술수다.

남한은 '반공'을, 북한은 '반미'를 ideology로 내세워 싸우기를 60년 이상 계속하고 있다. 반공과 반미라는 ideology는 남과 북의 최고 가치관으로 둔갑해 한국인들을 옥죄고 있다. 서로 반대를 위한 주장이기에 이해와 관용이 들어설 틈이 없다. 한반도 5천년 역사에 반공이나 반미라는 역사는 없었다. 서울 광화문에 모셔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반공이나 반미를 상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Louisiana 주의 사건이 기억됩니다. 한 Irish 계통의 미국 여자 백인 시민이 passport 내기 위해 루이지아나 주정부 보건부 생명통계국(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of Louisiana State Health Dept.)에서 발부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에 Black이라고 적혀 있어 그간 자기가 백인으로 행세하고 믿고 있었는데 시정을 요구했으나 불가하여 주대법원까지 가며 사투를 벌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유인즉 그 당시 1/32 (5대조상)의 흑인피가 섞여있으면 흑인으로 분류하는 주법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우리 큰애를 낳았는데 Louisiana

위선과 부패 되풀이되지만 ideology란 기독교 세력을 위한 위선이다. 그러기에 반공을 내세우는 남한이지만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국무총리 등 고위 공무원들이 병역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은 솔선수범이 결여된 나라다. 앞서 지적한 전 UN군 사령관 Clark장군은 같은 저서에서 '한국전쟁에서 142명의 미군 장군 자신들이 근무했고 그중 35명이 희생(사망, 행방불명, 부상)됐다'고 미국의 솔선수범과 희생정신을 밝혔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Oliver Holmes는 1861년 19세 나이로 Harvard대학을 몰라나 Union Army에 자원 참여했다. 32년 동안 대법원에 근무했고 1935년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옷장에는 두 벌의 군복이 있었다. 거기에 '이 군복은 내가 남북전쟁 때 입었던 것이고 옷에 묻은 것은 나의 피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Idea의 실천자는 솔직하고 용감하지만 위선적 혀로 애국을 말하지 않는다. 반공의 나라에서 병역을 필하지 않으면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나 고위직에 앉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구차한 병명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하나 현대전(총력전)에서 병역을 완수하지 못할 몸이라던 정부의 고위직 근무도 못하는 것이다.

요즈음은 반공이 아니라 세련된(?) 표현으로 '중북세력'이라며 분열을 강조한다. 2차 세계대전 후 중국에서 국민군과 공산군이 싸울 때 막대한 미군 원조를 받은 장개석 군대가 망한 이유를 우리는 기억한다. 남 Vietnam도 마찬가지다. 위선과 부패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방위사업의 제반 비리는 대한민국의 방위 능력이 열러스럽고 정부 고위직 임명자들이 위장전입과 병역 미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장관 자리를 유지하니 원칙과 법을 따른다는 주장이 헛소리로 들린다.

맺는 말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pragmatism의 힘으로 새로운 통일 미국을 재건하고 관용이 습수는 민주사회와 문화국가로 발전했다.

다른 한 편 한국은 idea가 없는 ideology로 분열하고 투쟁하는 국가로 전락했다. 세종대왕을 광화문에 동상으로만 모시지 말고 한글 창조정신을 받아들여 남과 북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분열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아보자. Ideology를 탈피하고 idea를 공부할 때다. ***

주 New Orleans시에 출생신고할 때 "황인종"으로 생각하여 "Yellow"라고 기록하여 지금도 그렇게 출생증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Asian"라고 기입했겠죠. 그러나 최근엔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 했으니 Marriage Application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출생증명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NJ주에선 동성연애자 (부인과 애가 있는)가 주지사로부터 "domestic partner" 동성 couple에게 부부의 혜택을 주었는데(이후 주지사 사퇴) 이런 연방법에 의해 남편과 아내로 구분해야 되니 말세 인가?***

독후감 | '보문산(寶文山)의 봄'을 읽고



박취서 (약대 60)

동창회보 254호에 실린 서윤석 동문의 "보문산의 봄"을 읽는 순간 내 자신이 보문산에 올라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면서 지나간 나의 인생살이의 한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왔다. 나는 1960년 서울약대에 입학하기까지 대전이라는 도시에 서 보문산과 식장산이라는 산을 바라다보면서 소년기를 지내고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1962년 대학 3학년시절 어느 여름날에 나 혼자서 보문산 정상에 올라 쉼터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대전 시내를 내려다 보면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산중기(山中

은갓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굴하지 않고...

記)라는 글을 써서 어느 잡지에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나는 문학평론가는 아니지만 서동문께서 쓰신 시의 다섯구절을 읽으면 서 떠오른 느낌을 적어보기로 한다.

첫구절 "보문산 오르막 황톳길엔 선바위 아직 의젓하고 아무진 소나무들 손 흔들며 아직도 나를 알아보네" 중고등학교 시절 나는 보문산이 지적에 보이는 대흥동이라는 동네에 살면서 동네의 친구 아이들과 같이 보문산에 자주 올라가곤 했는데 그 시절의 보문산은 나무가 별로없이 민둥산의 모습으로 정상을 향한 trail도 없이 황톳길과 바위들을 그리고 산등성이에 드문 드문 소나무들이 서있었다. 아마도 필자는 그 시절의 보문산의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면서 울창한 모습의 숲으로 돌

려썩인 지금의 모습과 대비하면서 첫구절을 시작한 것 같다.

제 2절 "구슬픈 서편제 판소리 IMF 실직자들의 한탄소리 사변때 혼령들의 비명소리 다들 어디에 숨었나요" 수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한민족의 백제땅 그곳에서 무속신앙에 얽힌 고통을, 그리고 6.25 사변때 비명횡사한 많은 한민족의 씨앗들, 그들의 모습을 보문산 정상에 서서 대전시가의 모습을 내려다 보면서 그리고 있다.

제 3절 "산 허리 여승당에 바람에 흔들리는 초파일 연등 사람들의 마을에 십자가를 얹은 뽕족지붕들 아, 소중한 봄 다시 오셨네" 오랫동안 한민족을 지배해오던 불교 문화에 이어 근세 이조 오백년의 유교문화를 거쳐 36년동안 피지배민족으로서의 서러움을 겪으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기독교가 기독교의 형태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온 세월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서있는 보문산의 모습! 그산에도 소중한 봄, 온갖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굴하지 않고 잠조같이 살아

남아 새로운 봄을 소중하게 맞이하는 씨앗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4절 "덩그렁거리던 철마들 사라지고 KTX가 달리는 신도시에 낯선 수많은 빌딩과 얼굴 여러분들, 어디서, 언제 오셨나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덩그렁거리던 천천히 움직이던 기차들은 사라지고 문명의 이기들이 한발을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시켜 대전역에는 완행열차 대신 KTX 가 달리고 지금은 수많은 빌딩의 숲속에 자리잡아 살고있는 새로운 얼굴을 가진 여러분들이 나타나 분주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변함없이 찾아온 보문산의 봄, 그 보문산은 변함이 없건만 산발 분지 한발에 사는 민초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많이 변해있음을 그리면서 세월의 무상(無

常)함을 그리고 있는데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물은 간데없네 여즈버 태평연일이 꿈이려나 하노라"를 연상시키는 구절이다.

마지막 구절 "지평선 끝까지 한발의 기적 그래도 변함 없으신 보문산의 봄 손꼽아 기다리던 계절이여 이제는 피물은 진달래는 말고 노란 개나리만 활짝피면 좋겠네" 서울 한강변의 기적 못지않게 광역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발전된 대전의 모습을 보면서 매년 변함없이 찾아오는 고국의 봄 새로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끊임없이 기다리는 한민족의 끈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계절로 그리면서 이제는 일제 식민지에서 의 해방, 남북 분단, 6.25 동안, 4.19 혁명, 5.16 군사혁명, 5.18 광주항쟁 등의 씨앗들의 피맺힌 역사는 사라지고 필자가 대학생살을 보냈던 1960년대 종로 5가에서 해화동까지 대학가 길을 따라 수놓았던 셋 노란 개나리꽃들의 평화스럽던 모습, 활짝 핀 개나리의 모습을 그리면서 변함없이 찾아온 "보문산의 봄"을 시상(詩興)으로 엮어본 것은 아닐까?

P.S.: 보문산은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동남쪽에 위치한 산이다. 지금은 대전광역시라고 불리우는 대전(大田)이라는 도시는 동쪽의 식장산(食藏山)과 동남쪽의 보문산(寶文山)으로 둘러싸인 분지(盆地)인데 순수한 한글식 발음으로 "한밭"이라고도 불리우며 경부선(京釜線)과 호남선(湖南線)을 연결해주는 교통요충지(交通要衝地)이다.***



< 보문산(寶文山)의 봄 >

보문산 오르막 황톳길엔 선바위 아직 의젓하고 아무진 소나무들 손 흔들며 아직도 나를 알아보네

구슬픈 서편제 판소리 IMF 실직자들의 한탄소리 사변 때 혼령들의 비명소리 다들 어디에 숨었나요

산 허리 여승당에 바람에 흔들리는 초파일 연등 사람들의 마을에 십자가를 얹은 뽕족지붕들 아, 소중한 봄 다시 오셨네

덩그렁거리던 철마들 사라지고 KTX가 달리는 신도시에 낯 선 수 많은 빌딩과 얼굴 여러분들, 어디서, 언제 오셨나요

지평선 끝까지 한발의 기적 그래도 변함 없으신 보문산의 봄 손꼽아 기다리던 계절이여 이제는 피 물은 진달래는 말고 노란 개나리만 활짝 피면 좋겠네 ***

- 서윤석 (의대 62) -

동문칼럼 | 백(白, White)씨와 흑(黑, Black)씨, 씨애틀 한인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윤여춘씨 기고문을 읽고...



조정연 (수의대 58)

제가 County Health Commissioner로 가기 전 74-81년도에 Cherry Hill Health

Director(보건과장/소장) 겸 Registrar of Vital Statics(생명통계관/호적과장)로 8년 가까이 일했을 때 현황을 생각했습니다. RVNS는 출생, 결혼, 사망, 매장/이장을 관리하며 이의 허가및 증서를 내리함과 서명으로 발부했는데 그때 신청서에 인종 (Race/Ethnicity) 기입란에 White, Black, Hispanic (White, non-White), Asian, 최근엔 혼혈 mixed도 세분해서 기입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흑인 같은데 본인인 백인이라고 기입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되었으나 NJ주법규정에 본인이 진술하는 대로 기록하라는 전례를 따르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Louisiana 주의 사건이 기억됩니다. 한 Irish 계통의 미국 여자 백인 시민이 passport 내기 위해 루이지아나 주정부 보건부 생명통계국(Registrar of Vital Statistics of Louisiana State Health Dept.)에서 발부한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에 Black이라고 적혀 있어 그간 자기가 백인으로 행세하고 믿고 있었는데 시정을 요구했으나 불가하여 주대법원까지 가며 사투를 벌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유인즉 그 당시 1/32 (5대조상)의 흑인피가 섞여있으면 흑인으로 분류하는 주법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우리 큰애를 낳았는데 Louisiana

주 New Orleans시에 출생신고할 때 "황인종"으로 생각하여 "Yellow"라고 기록하여 지금도 그렇게 출생증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Asian"라고 기입했겠죠. 그러나 최근엔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 했으니 Marriage Application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출생증명서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NJ주에선 동성연애자 (부인과 애가 있는)가 주지사로부터 "domestic partner" 동성 couple에게 부부의 혜택을 주었는데(이후 주지사 사퇴) 이런 연방법에 의해 남편과 아내로 구분해야 되니 말세 인가?***

동문칼럼 | 우분트(UBUNTU)란 말을 아시나요?



이태상 (문리대 59)

(오늘 아침 내 처남 안병영씨가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내게 보내왔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 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 놓고서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심심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다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예상과 달리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손을 잡았습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 과일을 베어 물고서 키득거리며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

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렸느냐?" 라고 묻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UBUNTU(우분트)" 라는 단어가 합창하듯이 쏟아졌습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분트! 당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있다.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모두가 함께 했을 때 더 커지는 달콤한 행복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당신 주위에 있는 평균 5명이 그 날 하루를 함께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

'UBUNTU'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우분트' 어디를 가나 일 등 아니면 최고를 따지는 세상이지만 '우

행복해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세상, 저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글을 전합니다.

"우분트(UBUNTU)" 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My Story & Your History〉를 시작하며...

허유선 (가정대 83, 특별사업국장, 편집위원)

이곳 미국에서 1만여명의 서울대 동문들이 살고 계십니다. 저희 미주동창회보에서는미국전역에 살고계시는 동문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여러 선배님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의 수많은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 합니다.

〈My Story & Your History〉는 동문님들의 인생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며 인생의 세잎 클로버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가장 젊고 찬란했던 시절을 '서울대' 라는 같은 공간에서 보낸 여러 동문님들의 미주에서의 삶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Garrion 이라는 곳에 수녀님들이 순례자들에게 '이길을 걸으려면 빛과 힘이 필요하다고 하며 인생도 마찬가지로 Light와 Force가 필요하다' 합니다

〈My Story & Your History〉에서 서로 나누는 선배동문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후배 동문님들에게 Light와 Force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시는 만큼 쓰셔서 동문님의 학창시절 사진과 현재 사진, 한장씩을 함께 저희 이메일 news@snuua.org로 보내주세요.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라는 말은 정말 의미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제13대 미주동창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간단한 소개와 이민동기, 또는 미국땅에 발을 디딘 날의 회고?
2.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3.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일?
4. My Favorite Things: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은?
6. Bucket List가 있으신가요?
7. 미주총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My Best Friend is the One who brings the Best in Me." -Henry Ford-

〈부고〉란을 신설하며...

미국은 참으로 넓은 땅입니다. 우리 동문들이 이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 이외에는 서로 못보고 무소식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동창회보〉가 있어 매월 실날같은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요.

최근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가족간의 혈연뿐만 아니라 친구간의 우정 또한 혈연에 못지않는, 어쩌면 더 값진 연결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꼭 전쟁때문은 아니라도 우리는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이유로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푸른 청춘 시절에 같이 웃고 울고 공부하던 친구가 그리워집니다.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으며,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집니다.

이번 13대에 들어오며 〈부고〉란을 신설합니다. 이러한 우리 동문들의 최소한의 감정을 풀어드리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미국 신문을 보면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페이지가 〈부고 Obituary〉란입니다. 우리도 이런 형식으로 본 〈부고〉란을 채우려 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은 누구나 가까웠던 친구의 슬픈소식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각 지부의 동창회장들을 통하시든가, 직접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동창회보 편집위원회(news@snuua.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고인의 사진(xx년 - xx년)
 2. 소속 대학, 입학 년도
 3. 주거 도시 (지부)
 4. 유가족 소식(유가족이 허용하는 경우), 친구의 추모글 등
 5. 고인이 생전에 남긴 말, 좋아했던 취미 등등
- (*이 란은 자유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의 특기사항 (특히 동창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사항), 고인의 사적 생활의 모습 등. *아래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소에 친구들과 골프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떤 때는 근처 공원에 혼자 산책하며 벤치에 앉아 명상하는 것도 즐겼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정원에 텃밭을 만들어 도마도, 상추, 무, 배추 등을 심어 가족들도 먹고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참 좋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무단 침입 야생 동물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죽이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소밭 주위에 철망을 쳤을 뿐입니다. 이 야생동물들이 야말로 정말로 이 자연의 원 주인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잃은 텃밭도 고인을 추모하겠지요."

- 〈부고〉 칼럼은 매 월 사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 돌아가신 분이 없는 달에는 인생을 조감할 수 있는 좋은 시(詩)나 글을 게재할 것입니다.

부고 - 알립니다

박용민(Yong Min Park) 동문님 (공대 54, 워싱턴 DC 지부)께서 7월 8일 소천하시고 10일 오후 8시에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고별예배를 드렸음을 김창웅(범대60) 동문이 전해오셨습니다. 박 동문은 서울 공대 전기공학과를 1960년에 졸업(54년 입학)하신후 한국전력과 NUS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독자의 광장〉란을 신설합니다

감명깊게 읽은 기사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존평을 실겠습니다.

동창회보의 글을 읽다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거나 "그래,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작가와 만나 같이 저녁이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느낀 바를 바로 적으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깊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만나서 대화하듯 몇 자 적어서 E-Mail (news@snuua.org)이나 편지로 보내주십시오. 비록 간단한 글이라도 그 효과는 아주 큼니다. 글쓴이에게는 '보람'을 주고 다른 독자들에게는 '나도 한 번 써볼까?' 하는 자극을, 신문 편집위원들에게는 '기쁨'을 선사한답니다.

너무 오래 된 신문의 글은 삼가하시고 지난 3 - 4개월 이내에 발행된 회보의 글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번 호에는 그 한 예로 21페이지 박평일 동문의 〈의사와의 대화- 미처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 처음 왔을 때 "Family Doctor는 제 2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 병원에 가면 한 30분 정도 의사 면담 시간을 주는 것 같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한국 의사로 바꾸니 다시 옛 한국식 10분 이내의 면담으로 "빨리 빨리"식이 되더군요. 인생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셨으니 축하드립니다. 부럽기도 하구요" *** (편집위원회)



펜 아시안이 제 행복입니다.

- | | | | |
|--|---|---|--|
| 가정 간호 서비스
-집에서 편안한 서비스 제공
-가벼운 식사준비 및 청소
-목욕 및 간병 서비스
-가벼운 심부름과 장보기 | 직업 교육원
-가정건강보조원 과정
-보조간호사 과정 | 실버 스쿨
사진, 자서전, 컴퓨터, 영어, 오카리나, 줄바, 라인댄스, 한 국무용, 한글 예쁜글씨 쓰기, 요가, 수채화, 한국화 등 | 주빌리 데이케어 센터
-간호사, 간호보조원 및 사회복지사 항시 대기
-한식 식사와 간식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물리치료 및 손마사지 |
|--|---|---|--|

제13대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손재옥 동문님 회장취임을 축하합니다.

펜 아시안노인복지원 PENN ASIAN SENIOR SERVICES PASSi

6926 Old York Rd Philadelphia PA19126 T: 215-572-1234 www.passi.us Email: admin@passi.us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제13대 손재옥 회장단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 제12대 오인환 회장단 일동



미주총동창회 13대 손재옥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뉴욕 회장단 일동



“미주총동창회 13대 손재옥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성원합니다.”

◆ 서울대학교 필라델피아 동창회 ◆

동창회비 · 광고 및 업소룩비 · 기타 후원 동문 (2015.7 ~ 2016.6)

*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각종 후원금은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미주 동창회의 원만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와 각종 후원금은 모두 다음의 Tax 번호로 감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Federal TIN: 13-3859506

동창회비	박찬호(농대 63) 배동완(공대 65) 안병일(의대 63) 지영환(의대 59)	김영기(공대 73) 김용탁(의대 53) 김창호(법대 56) 이정옥(공대 52) 임화식(치대 59) 장 준(인문 85) 강재호(상대 57) 강정훈(미대 56) 김중경(공대 48) 강희창(공대 57) 고영순(음대 59) 권오형(사대 61) 김경옥(미대 61)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교복(농대 63) 김동호(농대 58)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문인일(공대 51) 박노면(사대 50) 박인수(농대 64)	김영기(공대 73) 김용탁(의대 53) 김창호(법대 56) 이정옥(공대 52) 정기순(간호 67) 장수영(공대 57) 정기순(간호 67) 홍용식(공대 51)	이상오(문리 61) 이시영(상대 46) 전경철(공대 55) 조봉안(법대 53) 조형원(약대 50) 최혜숙(의대 53) 함성택(문리 55)	New York 김동경(약대 61) 김석식(의대 58) 김영철(의대 55) 김완주(의대 54) 김용술(상대 56) 김정은(의대 77) 문석면(의대 52) 민준기(공대 59) 김문소(수의 61)	조종수(공대 64) 최종진(의대 53) 한태진(의대 58) 허유선(가정 83)	정홍택(상대 61) 조영호(음대 56) 지재원(사대 68) 한중희(공대 80) 황선희(공대 74)	Ohio 김동광(공대 62) 김용현(경영 59)	Tennessee 김경덕(공대 75)	Oregon 박순영(법대 56) 박은규(약대 72) 박현성(약대 60) 서병선(음대 65) 송영순(사대 60) 양명자(사대 63) 엄극용(의대 54) 우상남(상대 55) 유영호(의대 52) 이강홍(상대 60) 이경태(공대 63) 이성구(약대 56) 이중환(법대 51)	조종수(공대 64) 최종진(의대 53) 한태진(의대 58) 허유선(가정 83)	Texas 김기준(공대 61) 한국남(공대 57) 한영준(사대 60) 김태훈(공대 57)	Utah 김인기(문리 58)	Washington State 이동립(의대 52)
Arizona	양은혁(상대 56) 이소희(의대 61) 이정옥(공대 52) 장수영(공대 57) 차민경(가정 77) 홍용식(공대 51)	이문항(공대 46) 정기순(간호 67) 장수영(공대 57) 차민경(가정 77) 홍용식(공대 51)	이문항(공대 46) 정기순(간호 67) 장수영(공대 57) 차민경(가정 77) 홍용식(공대 51)	이문항(공대 46) 정기순(간호 67) 장수영(공대 57) 차민경(가정 77) 홍용식(공대 51)	Massachusetts 김문소(수의 61)	Delaware 안세현(의대 62)	Florida 정진묵(의대 50)	Georgia 오경호(수의 60)	Hawaii 최경윤(사대 51)	Illinois 김규호(의대 58)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이영모(의대 53) 최병두(의대 52)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송창원(문리 53)	Nebreska 오제이슨(의대) 최영식(법대 59)	Pennsylvania 강영배(수의 59) 김정현(공대 68) 김진우(공대 62) 안지영(문리 67) 윤경숙(문리 59) 이성숙(가정 74) 심희진(음대 90) 정학량(약대 56)

후원회비
송요준(의대 64): 200 손재옥(가정 77): 20,000
Golf 후원금
이전구(농대 60): 500 NE Chapter : 100
광고 및 업소룩
민준기(공대 59): 200 (축하광고) 김광호(문리 62): 3,000 (2 by 12/15) 이승훈(상대 74): 1,800 (-12/15)

미주총동창회는 동문여러분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제13대 회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의 1년 회비는 75불입니다. 아래의 동창회 주소로 체크를 보내 주십시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주소: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100, Blue Bell, PA 19422 (문의: 484-344-5500 Ext.304)

✂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주소 :	전 주소 :			
업소 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룩 광고비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연 \$200 <input type="checkbox"/> 연 \$500 <input type="checkbox"/> 연 \$1,000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5.7~2016.6)	<input type="checkbox"/> \$240 (2015.7~2016.6)	<input type="checkbox"/> 명함크기 (3.5"x 2") \$100 <input type="checkbox"/> 1/6면 (5"x 4.5") \$2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x 4.5") \$400 <input type="checkbox"/> 1/2면 (10"x 7") \$6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x 14") \$1,000 <input type="checkbox"/> 전면 (Back 10" x14") \$1,500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종신 이사회비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484-344-5500 Ext 304 로()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문의는 전화
(484) 344-5500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Tel.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 kangdon@att.net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신대식 (상대 60)
Tel.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 (상대 56)
Tel.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치과

배운범 치과
배운범 (치대 69)
Tel. (213) 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광관도매)
이병준(상대 55)
Tel. (562) 692-0600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 클리닉

Teamspirit Investment & Dev.
Jennie Lee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949) 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lee@gmail.com, jennielee.mytsr.com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리테일러 / 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Tel.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P.O. Box 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612) 418-5393
P.O. 7416 Beaverton, OR 97007

TX 텍사스

C&C Industries INC.
진기주 (상대 60)
Tel. (713) 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c@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최영태 (문리 67)
Tel.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건축 /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MD-VA-워싱턴 DC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Drivetech, Inc
임달용 (공대 69)
Tel. (703) 327-2797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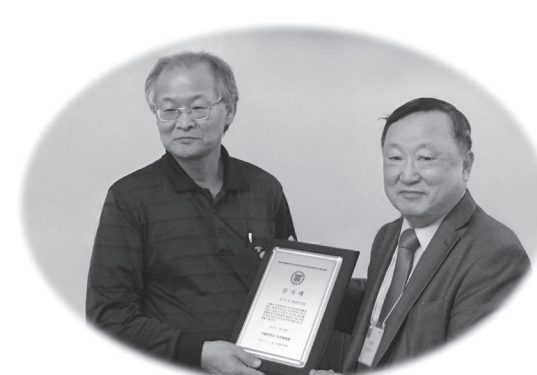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 편집후기 ■



“지난 6년간 서울대 동창회보와 함께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6년간 동창회보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이기준 전 편집주간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각기 다른 성향을 지닌신 3대 회장님과 (송순영 10대, 김은종 11대, 오인환 12대 회장님) 함께 동창회보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제13대 편집위원회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생각에 고삐를 매어서 향기로운 마음으로 동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용기와 관심을 주시고 동문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참여를 통해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많은 우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발행인>

드디어 긴 길의 첫발을 디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편집위원들의 수고가 눈에 보입니다. 어려운 일을 마칠 때마다 해산의 고통 끝에 오는 기쁨을 비유하곤 하는데, 이번에도 그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요. 우리 서울대 동문들의 수준에 알맞고 흥미있는 원고 모집을 시작으로 편집위원들이 밤이 드새도록 의논하며 편집하며 디자인하고 최고의 신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첫 걸음입니다. 부족하다라도 살짝 눈 감아주시고 많은 조언과 동문들의 소식, 그리고 좋은 칼럼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편집위원장님, 정흥택 주필님, 승보현 디자이너, 손재욱 회장님, 그리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격려하고 도와주신 손길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지재원 편집위원>

.....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플까 남자인 나는 모른다. 내가 결혼하고 집사람이 첫 아기를 낳을 때 산모 머리맡에서 산모의 손을 붙잡아 준 적은 있다. 그러나 정작 아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 의사는 딸을 뿔뿔히 찢고 있는 나를 보고 산실에서 나가란다. 얼마가 지났을까, 허락받고 들어가 보니 집사람은 비록 창백했지만 웃음띤 얼굴이었다. 나는 “후우” 한 숨을 쉬고 나서 아기와 상명했다. 그런데 남자가 산고(産苦)를 아는 방법이 있다

다. 아주 오래 전 빌 코스비(Bill Cosby)가 인기 절정의 때였다. 자기 아랫 입술을 잡아 늘려서 얼굴 전체를 덮어보아라. “조금 더. 조금 더. 힘을 주어 당겨봐요! 조금만 더.” 그만큼 아프단다. 필라델피아 챕터(Philadelphia Chapter)가 첫 아기를 낳았다. 난산(難産)은 아니고 협산(協産)이다. 매일매일 내 컴퓨터 E-Mail의 화면은 원고 글과 광고안으로 꽉 차서 내 개인 것은 자꾸 자꾸 뒤로 밀리고 만다. 정말 편집위원 모두가 사생활단의 마음으로 일에 임했다. 그 중에서도 손재욱 회장의 Leadership과 김정현 편집위원장의 Professionalism은 눈부셨다. 바라기는 부디 내 눈만 부시지 말고 7월호를 읽는 독자 모두 같이 흥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독자 되고 필자 되고 광고 권유자가 되는 꿈도 꾸어본다. *** <주필>

.....

미국 독립선언서의 앞 부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다음의 기본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권(Life), 자유권(Liberty), 그리고 행복추구권(the

pursuit of Happiness)이다...” 선언문은 계속해서 “정부는 국민의 이런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며,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를 국민은 바꾸든가, 폐기하고 새 정부를 세울 수 있다...” 라고 선포한다.

1776년 7월, 이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고 선포된 곳이 바로 2015년 7월, 제13대 서울대 미주총동창회가 시작되는 필라델피아라는 사실은 뜻 깊은 일이다. 낯선 땅의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독립군(대륙군)을 모집하고 전쟁을 시작한 미정부가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되었으며 역사를 바꾸게 되는 많은 전투들이 필라델피아 인근에서 벌어졌다. 총동창회 본부가 자리잡은 블루벨이라는 동네 이름에서도 독립을 선포할 때 울려 퍼진 자유의 종 (Liberty Bell)이 연상된다. 동네 곳곳에 그런 이름들이 보인다. Fort Washington State Park, Germantown 전투에서 퇴각한 대륙군이 영국군을 상대로 마지노 선을 펼친 언덕인 Camp Hill, 부상병들을 치료하던 야전병원인 윌턴 Hope Lodge, 그리고 1743년부터 시작한 Blue Bell Inn을 비롯함, 조지 워싱턴 장군과 대륙군이 머물고 갔던 곳들의 역사적 장소나 건물들이 총동창회 사무국으로부터 반경 1-2 마일내에 흩어져 있다. 막강한 영국 정규군이 밀려 1777-8년의 혹독한 겨울을 지낸 허허 벌판 Valley Forge National Park도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

미주 총동창회는 왜 존재하는가? 총동창회 회칙은 존재의 목적을 “자선(Charity)과 교육(Education)이 주목적으로 회원들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웃을 돕는 자선이나, 교육, 그리고 친목과 협력, 이 모든 목적이 회원들의 행복을 위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회원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이 다른 회원의 불행은 바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이방의 선조들처럼, 우리 회원들도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해서, 행복해지자.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신나는 잔치를 동창회보를 통해 즐겨보자. 그래서 제13대 회기를 마치는 2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진 회원들, 더 행복해진 지부와 이웃들, 그리고 미주 총동창회가 되어 있기를 소원해 본다. *** <편집인>

미국 동창회 조직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3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회장

오인환(문) ·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중(상)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욱(가정)

차기 회장 |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황선희(공)
고 문 |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차임경(가정) | 사업국장 | 한중희(공)
총무국장 | 심희진(음) | 섭외국장 | 박형준(공)
조직국장 | 백옥자(음) | 특별사업국장 | 허유선(가정)
재무국장 | 이성숙(가정) | IT개발위원장 | 김원영(미)

회보 임원

발행인 | 손재욱(가정)
주 필 | 정홍택(상)
편집위원장 | 김정현(공)
편집/디자인 | 승보현
편집위원 | 김진우(공) · 차임경(가정) · 이성숙(가정)
지재원(사) · 허유선(가정) · 황선희(공) · 김상돈(공)
심희진(음) · 정태광(공)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Webmaster | 김원영(미)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 · 고병철(법) · 조동준(의) · 이채진(문)
최용완(공) · 정홍택(상) · 윤상래(수의) · 김창수(약)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용현(경) · 유재풍(법)
장석정(법) · 하용출(사) · 민경훈(법) · 이원영(정)

회칙 위원회

위원장 | 한재은(의)
위 원 | 서중민(공) · 이민연(법) · 이강원(공)
김병연(공) · 김용현(상) · 함은선(음)

인선위원회

오인환(위원장, 직전회장) ·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4명(미정)

모교 발전 기금 위원회

손재욱(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오인환(위원장, 직전회장)
+ 4명(미정)

감사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 편집 / 디자인 : 승보현
* 인쇄 : TN Printing, Lehigh, PA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회장	박해욱(간호 69)	818.952.2871	jennypaek2@gmail.com	Feb-Feb
	차기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907	byeongk@gmail.com	
북가주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회장	민준기(공대 69)	845.270.0451	joonmin1@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Jul-Jun
	차기회장	이의인(공대 68)	781.862.5270	euinlee@verizon.net	
달라스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카운티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me.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cysuh727@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yongjo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nhwan-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시카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이성우(공대 72)	614.294.2453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	wonlee@qbmintl.com	Jan-Dec
	차기회장	임현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원(자연 83)	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중부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차기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회장	윤기향(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성낙일(해양 77)	217.508.8711	nsung@hawaii.edu	Jul-Jun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대표: 이승훈(상대 74)

Tel: 562-633-7400

정평희 (공대 71, 12대 사무총장)

Paul Chung, P.E.
President

GEOTECH ENGINEERS, INC.
11890-U Old Baltimore Pike, Beltsville, MD 20705
Tel. 301.937.9227 / Fax. 301.937.9189
Website: www.geotechengineersinc.com
E-mail: paulchung@geotechengineersinc.com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82), 문리대 www.duo.co.kr

좋은 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드립니다.
- 배려형 커플매너: 전문적이고 믿음 수 있는 커플매너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감독: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HANS TRAVEL
hanstravel.com

Toll Free 1.800.963.4267, T. 703.658.1717, F. 703.658.3110, info@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SNU여 행동아리와 함께 한 여행

1차: 2007년: 지중해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이집트,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네팔, 인도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페루,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발칸 반도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8차: 2014년: 베네룩스 & 노르망디 프랑스 여행
9차: 2015년: 실크로드를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북 스페인 맛기행 - 유럽의 키친, 스페인을 맛 본다 !!!

2016년 10차 여행지인 북스페인의 맛과 예술 문화 탐방 + 산티아고 순례길 살라망카-산티아고-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빌바오-산사바스티안-게르니카-소울이 축제의 도시 팜플로나-광기의 천재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고향 휘게레스-바르셀로나

여행일자: 2016년 5월 22일 - 5월 31일 9박 10일

미동부 \$3980.00/ 미중부 \$4080.00/ 미서부 \$4180.00 국제선 항공 포함.

포함사항: 국제선 항공, 딜럭스 호텔, 특식 및 와인, 대령 차량, 가이드, 입장료 / 선착순 30분

2015년 한스와 함께 하는 단독 여행

-9/21-10/4 DELUXE GREECE & TURKEY 13박14일
그리스(아테네, 고린도, 에기나 섬, 마테오라) - 터키(이스탄불, 가파도키아, 콘야, 파묵칼레, 안탈리아, 에베소)

-9/23-9/30 HOLIDAY IN CROATIA 7박8일
크로아티아(두브로브니크, 스플리트, 프리트비체, 오파티아), 슬로베니아(블레드), 오스트리아(그라츠, 비엔나)

-10/1-10/11 APLS PANORAMIC TOUR 10박11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10/7-10/16 전국일주와 흥도, 흑산도 맛여행 9박10일
서울, 부여, 무주구천동, 전주, 목포, 흑산도, 흥도, 통영, 부산, 경주, 삼척, 설악, 남이섬-서울

-10/18-10/29 SPLENDID SICILY이태리 남부 11박12일
Palermo- Monreale, Marsala, Selinunte, Agrigento, Taormina, Mt. Etna, Messina, Carpi, Pompeii

-10/24-10/30 THE BEST OF CHINA 6박7일
황산(黃山)과 무릉도원 장가계(張家界)

-10/31-11/5 일본 북해도 단독과 온천 여행 5박6일
삿포로, 오타루, 하코다테, 노보리베츠, 삿포로

2016년 1/11-1/22 파타고니아 빙하 여행 11박12일
칠레(알라파테), 아르헨티나(우수아이아, 모레노 빙하, 토도글레시아, 부에노스아이레스)

www.wilshirebank.com

행장 유재환 (상대 67)

내 비즈니스를 열고픈 꿈...
일셔은행을 만나면
꿈은 현실이 됩니다!



빠르고, 쉽고, 간편하게-
일셔은행 SBA

- ▶ SBA 7(a) 융자 최대 \$5,000,000까지
- ▶ SBA 504 융자 최대 \$10,000,000까지

바로 연결되는 SBA LOAN센터 **888-WSB-LEND (972-5363)**
SBAloan@wilshirebank.com

자체 승인 대출기관 (Preferred Lender)으로 간단 신속한 승인절차
SBA 파이낸스 서비스 챔피언 수상 (SBA Financial Services Champion 2014)

고객은 꿈을 꾸고, 일셔은행이 이루어 드립니다!

